

발간등록번호  
2020-KIHF-075

# 2020년 제 1차 온라인 가족포럼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

일 시 2020. 8. 4.(화) 14:00  
장 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402호 회의실

##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입니다.

모두의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안녕”이 중요해진 시기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본원의 가족포럼에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그렇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코로나19로 그 동안 진행해 오던 모든 사업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파장은 매우 커서 혹자는 우리들이 결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사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도 자녀 돌봄 공백, 아동방임, 가족관계 갈등증가 등 다양한 어려움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219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서비스 이용시설로서 지역센터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미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지원, 코로나 대응 가족전화상담, ‘가족관계방역’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결과를 공유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서비스 수요조사’ 역시 가족서비스 이용자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떤 비대면 서비스를 희망하는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원은 토론자분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내용과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보시고 전해주시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장기화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듬을 수 있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돌봄공백, 다양한 가족들에게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련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통해 참여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PROGRAM

▷ 개회식

인사말 : 김혜영 이사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발표

[발표]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  
- 박경은 본부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 토론

좌 장 : 황정미 이사 ((사)한국여성연구소)

[토론 1]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  
- 강주현 센터장(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론 2]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  
- 김연화 센터장(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론 3]  
비대면 가족상담 운영과제와 전망  
- 이인수 원장(이인수심리상담연구소 & Other Life)

▷ 질의 응답

▷ 폐회

# 목 차

[발표]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  
- 박경은 본부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 . . . . 05

[토론 1]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  
- 강주현 센터장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 35

[토론 2]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  
- 김연화 센터장 |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 41

[토론 3] 비대면 가족상담 운영과제와 전망  
- 이인수 원장 | 이인수심리상담연구소 & Other Life . . . . . 49

[참고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서비스 수요조사 설문지 . . . . . 53

[참고 2] 2020년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1차~5차) . . . . . 63

[발표]

#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

박경은 본부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2020.2.23.)가 시행되고 이에 공공이용시설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일제히 휴관을 실시한바 있음.

-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돌봄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한부모사례관리 가족을 위한 생필품 지원 등 지역센터를 활용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또한 '긴급돌봄지원TF'를 구성한바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일환으로 "가족관계방역 카드뉴스"를 배포하였으며,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 지원 등의 시범사업과 매뉴얼 개발 등 대응하고 있음. 지역센터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개별 센터별로 비대면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지난 6월 이후 다시 센터를 개관하여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응조치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동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가족지원서비스 전담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동학대, 코로나 블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정생활 변화, 영세자영업 한부모들의 적응 어려움, 다문화가정 고립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센터방문 혹은 가정방문 등 대면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언론동향을 통한 지역센터 서비스 관련 키워드 >

- 1차(2.1~3.19) : 돌봄공백
- 2차(3.20~4.17)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한부모자영업자 사각지대
- 3차(4.18~5.15) : 포스트코로나 대비
- 4차(5.16~6.12) : 비대면 서비스, 아동학대
- 5차(6.13~6.29) : 다문화가족서비스 중심의 일상적 서비스 재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자료(2020.6)

- 기존 대표적인 비대면서비스인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에 온라인 상담의 동향을 살펴보면(2018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 2018년에는 총 2,013건, 2019년 2,203 건이었으나 2020년은 1,362건이 상담요청된 것으로 나타남. 2020년의 경우에는 상반기만을 집계한 것으로 볼 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자료, 2020.7).

- 이런 상황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가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과 향후 이용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서비스 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들의 생활적응실태와 향후 서비스 선호방식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발제문의 목적임.

## II.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실태

### 1. 실태조사 개요

#### 1.1 조사개요

- (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이용자 입장에서의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 설정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표본은 아래와 같음

<표 1-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2019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
표본 수	· 만 18세 이상 이용 경험자 1,000명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
조사 기간	· 2020년 7월 9일~16일
조사내용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가족생활 변화, 향후 가족지원서비스 수요

#### 1.2 응답자 특성

- 본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응답자 중 88%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7.7%로 가장 많았음. 응답자중 91%가 유배우자 가구였고, 95%가 유자녀 가구였음. 응답자의 21%가 다문화가정이었고, 8.5%가 한부모가구였음.

<표 1-2> 응답자 구성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11.9
	여성	88.1
연령대	20대 이하	2.8
	30대	40.0
	40대	47.7
	50대 이상	9.5
	배우자	91.1
거주 가족구성원 (중복)	자녀	95.1
	부모	11.4
	기타	1.9
	다문화 가족 여부	20.9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 가족	20.9
	비다문화 가족	79.1
한부모 가족 여부	한부모 가족	8.5
	비 한부모 가족	91.5

### 2. 조사결과 : 센터 이용행태

#### 2.1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센터 이용경험

-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코로나19 확산(20년 2월 23일 기준)이전에 센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을 물었을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4%이었음. 남성의 이용경험이 81.5%로 여성보다 약간 높았고, 30대의 이용경험이 80.3%이었음. 다문화가족인 경우 이용경험이 82.2%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4%p 이용률이 높았고, 한부모가족의 경우 71.4%였음.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06명에 대해서도 2019년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인지 때문에 응답 대상자 모두 센터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서비스 수요는 확인하였음.

<표 2-1> 코로나19 확산 이전 이용 경험

(n=1,000, 단위 : 명, %)

	사례수	코로나19 이전, 이용경험 있음		코로나19 이전, 이용경험 없음		
		N	%	N	%	
전체	(1000)	794	79.4	206	20.6	
성별	남성	(119)	97	81.5	22	18.5
	여성	(881)	697	79.1	184	20.9
연령대	20대 이하	(28)	18	64.3	10	35.7
	30대	(400)	321	80.3	79	19.8
	40대	(477)	380	79.7	97	20.3
	50대 이상	(95)	75	78.9	20	21.1
다문화가족	예	(208)	171	82.2	37	17.8
	아니오	(788)	621	78.8	167	21.2
한부모가족	예	(84)	60	71.4	24	28.6
	아니오	(907)	727	80.2	180	19.8

- 한편 코로나 이전에 이용해 봤던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용자는 404명(50.9%)으로 코로나 확산이전에 비해 이용비율은 28.5%p 감소하였음.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이용률은 66.0%, 여성은 48.8%로 여성의 이용률 감소가 더 컸음. 연령별로는 20대(61.1%), 50대 이상(58.7%), 40대(54.7%), 30대(43.9%) 순으로 30~40대가 이용률이 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가족유형별로는 다문화가족인 경우가 코로나19 이후 이용비율이 69.6%로 그렇지 않은 경우(45.9%)보다,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68.3%로 그렇지 않은 경우(49.5%)보다 각각 23.7%p, 18.8%p 이용비율이 높았음. 이 수치는 각각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모두 감소한 수치이나 코로나 이후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이용률 감소폭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지 않았음.

<표 2-2>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 경험

(Base : 코로나19 이전 이용 경험자, n=794, 단위 : %)

	사례수	코로나19 이후, 이용경험 있음		코로나19 이후, 이용경험 없음		
		N	%	N	%	
전체	(794)	404	50.9	390	49.1	
성별	남성	(97)	64	66.0	33	34.0
	여성	(697)	340	48.8	357	51.2
연령대	20대 이하	(18)	11	61.1	7	38.9
	30대	(321)	141	43.9	180	56.1
	40대	(380)	208	54.7	172	45.3
	50대 이상	(75)	44	58.7	31	41.3
다문화가족	예	(171)	119	69.6	52	30.4
	아니오	(621)	285	45.9	336	54.1
한부모가족	예	(60)	41	68.3	19	31.7
	아니오	(727)	360	49.5	367	50.5

## 2.2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이용 서비스 유형

- 코로나19 확산(20년 2월 23일 기준) 이전과 이후 이용한 서비스 유형을 '직접센터 방문', '전화상담', '가정방문서비스', '통번역지원(전화, 이메일, 팩스 등)', '인터넷 상담'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한 서비스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음. 코로나19 확산 이전은 직접센터를 방문하였다에 응답한 사람이 이용자의 89.9% 였고, 전화상담 20.9%, 가정방문 9.3%, 기타 6.4%, 비대면 통번역지원이 3.5%, 인터넷상담이 2.8% 순이었음. 즉, 이용자의 대부분이 직접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대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전 연령대에 걸쳐 직접센터 방문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직접센터 방문 외 전화상담의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 중 가장 높았음.

<표 2-3> 코로나19 확산 이전 이용 서비스

(Base : 코로나19 이전 이용 경험자, n=794, 중복, 단위 : 명, %)

	사례수	직접 센터 방문		전화상담		가정 방문 서비스		통번역 지원		인터넷 상담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794)	714	89.9	166	20.9	74	9.3	28	3.5	22	2.8	51	6.4	
성별	남성	(97)	91	93.8	34	35.1	20	20.6	11	11.3	4	4.1	3	3.1
	여성	(697)	623	89.4	132	18.9	54	7.7	17	2.4	18	2.6	48	6.9
연령대	20대 이하	(18)	14	77.8	3	16.7	6	33.3	2	11.1	1	5.6	0	0.0
	30대	(321)	287	89.4	57	17.8	17	5.3	9	2.8	10	3.1	15	4.7
	40대	(380)	341	89.7	82	21.6	34	8.9	11	2.9	10	2.6	32	8.4
	50대 이상	(75)	72	96.0	24	32.0	17	22.7	6	8.0	1	1.3	4	5.3

- 코로나19 확산(20년 2월 23일 기준) 이후의 이용서비스 유형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였다'를 선택한 사람이 이용자의 61.9%였고, 전화상담 29.2%, 기타 17.3%, 가정방문 12.1%, 인터넷상담이 5.7%, 비대면 통번역지원이 4.2% 순이었음. 한편, 기타의견 중 비대면 키트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에 해당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들은 직접 센터 방문 경험이 75%로, 여성은 59.4%였음. 전화상담비율은 남성이 40.6%, 여성이 27.1%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구성비가 높았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직접센터 방문으로 서비스로 이용한 이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비율이 높아졌음.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한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의 43.2%가 이용하였음.

<표 2-4>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 서비스

(Base : 코로나19 이후 이용 경험자, n=404, 중복, 단위 : 명, %)

	사례수	직접 센터 방문		전화상담		가정 방문 서비스		인터넷 상담		통번역 지원		비대면 키트		기타		
		N	%	N	%	N	%	N	%	N	%	N	%	N	%	
전체	(404)	250	61.9	118	29.2	49	12.1	23	5.7	17	4.2	16	4.0	70	17.3	
성별	남성	(64)	48	75.0	26	40.6	9	14.1	4	6.3	4	6.3	1	1.6	2	3.1
	여성	(340)	202	59.4	92	27.1	40	11.8	19	5.6	13	3.8	15	4.4	68	20.0
연령대	20대 이하	(11)	6	54.5	3	27.3	2	18.2	0	0.0	3	27.3	1	9.1	1	9.1
	30대	(141)	81	57.4	33	23.4	14	9.9	14	9.9	7	5.0	4	2.8	23	16.3
	40대	(208)	131	63.0	63	30.3	27	13.0	7	3.4	4	1.9	11	5.3	41	19.7
	50대 이상	(44)	32	72.7	19	43.2	6	13.6	2	4.5	3	6.8	0	0.0	5	11.4

## 2.3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센터에서 이용한 가족지원서비스 유형

### 가. 확산이전

-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714명에게 직접 센터에서 이용한 가족지원서비스 유형을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다문화특성화사업', '한국어교육'으로 나누어 이용률을 알아봄. 가장 많은 이용률을 나타낸 서비스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63.4%(453명)의 이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이 58.1%(415명), 문화 프로그램 45.2%(323명), 가족역량강화사업 13.7%(98명), 한국어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각각 12.9%(92명), 다문화특성화사업은 8.7%(62명)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교육프로그램의 이용률이 64.8%(59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상담프로그램 49.5%(45명), 문화프로그램 48.4%(44명)의 순이었음. 여성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69%(430명), 교육프로그램 57.1%(356명), 문화프로그램 44.8%(279명)의 순이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교육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문화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순이었고, 30대는 공동 육아나눔터,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의 순으로, 40대는 교육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문화프로그램의 순으로, 50대 이상은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의 순이었음.

<표 2-5> 코로나19 확산 이전 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Base : 코로나19 이전 센터 이용 경험자, n=714, 중복, 단위 : 명, %)

	사례수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상담 프로그램		다문화 특성화사업		
		N	%	N	%	N	%	N	%	N	%	N	%	N	%	
전체	(714)	453	63.4	415	58.1	323	45.2	98	13.7	92	12.9	92	12.9	62	8.7	
성별	남성	(91)	23	25.3	59	64.8	44	48.4	14	15.4	19	20.9	45	49.5	16	17.6
	여성	(623)	430	69.0	356	57.1	279	44.8	84	13.5	73	11.7	47	7.5	46	7.4
연령대	20대 이하	(14)	8	57.1	9	64.3	7	50.0	2	14.3	3	21.4	6	42.9	3	21.4
	30대	(287)	220	76.7	159	55.4	118	41.1	35	12.2	30	10.5	21	7.3	19	6.6
	40대	(341)	199	58.4	205	60.1	158	46.3	49	14.4	39	11.4	38	11.1	29	8.5
	50대 이상	(72)	26	36.1	42	58.3	40	55.6	12	16.7	20	27.8	27	37.5	11	15.3

나. 확산이후

- 코로나19 확산 이후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응답한 사례자는 250명으로 확산 이후 이용한 404명의 61.9%에 해당됨. 센터에서 이용한 가족지원서비스는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이 47.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40.4%), 문화 프로그램(28.8%) 등의 순으로 확산 이전과 순위에는 차이가 없었음.

- 성별로는 남성은 교육프로그램의 이용경험비율이 39.6%(19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문화프로그램 33.3%(16명), 한국어교육 31.3%(15명), 공동육아나눔터 18.8%(9명), 상담프로그램 14.6%(7명)의 순이었음. 여성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54.0%(109명), 교육프로그램 40.6%(82명), 문화프로그램 27.7%(56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12.9%(26명), 상담프로그램 10.4%(21명)의 순이었음. 코로나19이후에도 여성들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음.

- 연령대별로는 30대는 공동육아나눔터,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의 순으로, 40대는 공동육아나눔터,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의 순으로, 50대 이상은 교육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프로그램의 순이었음.

<표 2-6> 코로나19 확산 이후 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n=250, 중복, 단위 : 명, %)

	사례수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상담 프로그램		다문화 특성화사업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50)	118	47.2	101	40.4	72	28.8	35	14.0	29	11.6	28	11.2	22	8.8	
성별	남성	(48)	9	18.8	19	39.6	16	33.3	9	18.8	15	31.3	7	14.6	4	8.3
	여성	(202)	109	54.0	82	40.6	56	27.7	26	12.9	14	6.9	21	10.4	18	8.9
연령대	20대 이하	(6)	2	33.3	1	16.7	1	16.7	1	16.7	1	16.7	2	33.3	0	0.0
	30대	(81)	48	59.3	37	45.7	21	25.9	7	8.6	8	9.9	6	7.4	8	9.9
	40대	(131)	65	49.6	51	38.9	42	32.1	18	13.7	9	6.9	15	11.5	10	7.6
	50대 이상	(32)	3	9.4	12	37.5	8	25.0	9	28.1	11	34.4	5	15.6	4	12.5

2.4.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

가. 확산이전

- 코로나19 확산 이전 이용한 가정방문 서비스 유형은 가정방문서비스 이용자 74명 중 방문교육사업이 51.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39.2%,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1.6%, 다문화특성화 사업 13.5%의 순이었음.

<표 2-7> 코로나19 확산 이전 이용한 가정방문서비스

(Base : 코로나19 이전 센터 이용 경험자, n=74, 중복, 단위 : 명, %)

	사례수	방문교육사업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 특성화사업		
		N	%	N	%	N	%	N	%	
전체	(74)	38	51.4	29	39.2	16	21.6	10	13.5	
성별	남성	(20)	13	65.0	5	25.0	6	30.0	4	20.0
	여성	(54)	25	46.3	24	44.4	10	18.5	6	11.1
연령대	20대 이하	(6)	3	50.0	1	16.7	2	33.3	0	0.0
	30대	(17)	13	76.5	4	23.5	4	23.5	3	17.6
	40대	(34)	11	32.4	19	55.9	8	23.5	4	11.8
	50대 이상	(17)	11	64.7	5	29.4	2	11.8	3	17.6

나. 확산이후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자는 이전 대비 66.2%인 총 49명으로, 이 중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이 57.1%로 절반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문교육사업(36.7%), 아이돌봄지원사업(2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문교육사업이 중단되었다 재개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중단되자 생필품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기 때문으로 보임.

<표 2-8>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한 가정방문서비스

(Base : 코로나19 이후 센터 이용 경험자, n=49, 중복, 단위 : 명, %)

	사례수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 특성화사업		
		N	%	N	%	N	%	N	%	
전체	(49)	28	57.1	18	36.7	14	28.6	1	2.0	
성별	남성	(9)	4	44.4	6	66.7	2	22.2	0	0.0
	여성	(40)	24	60.0	12	30.0	12	30.0	1	2.5
연령대	20대 이하	(2)	1	50.0	0	0.0	1	50.0	0	0.0
	30대	(14)	9	64.3	3	21.4	6	42.9	0	0.0
	40대	(27)	14	51.9	12	44.4	7	25.9	1	3.7
	50대 이상	(6)	4	66.7	3	50.0	0	0.0	0	0.0

## 2.5.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서비스 이용 빈도의 변화

### 가. 확산이전

- 센터에 방문해서 이용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이용 빈도를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프로그램'(8.7%)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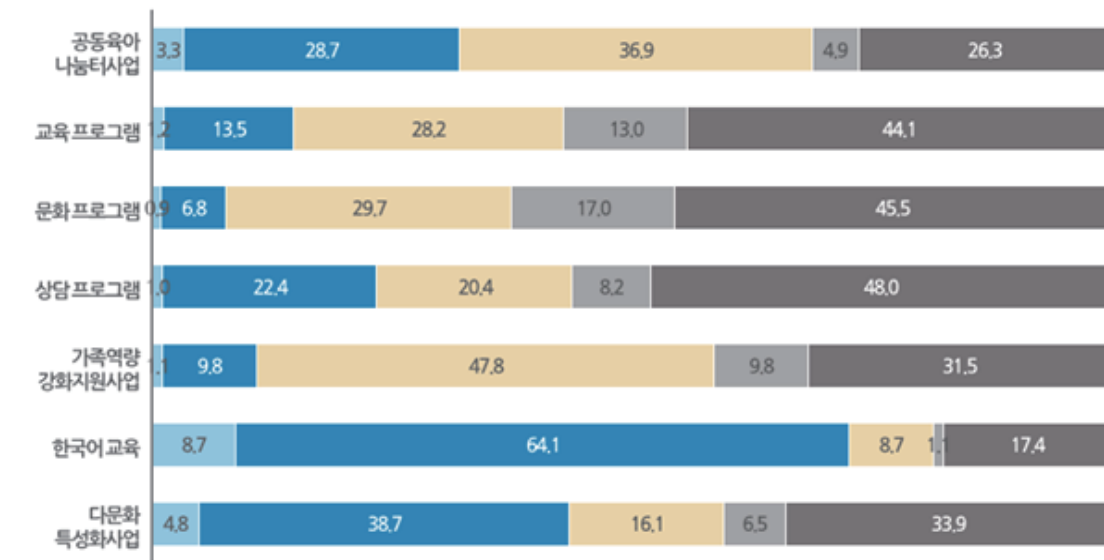
- 주1~2회 사용빈도가 높은 서비스는 한국어교육(64.1%), 다문화특성화사업(38.7%), 공동육아나눔터(28.7%), 상담프로그램(22.4%) 등이었음.

-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 1~2회' 혹은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14.7%, 7.7%, 23.4%였음.

- '한달에 1~2회'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47.8%)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사업' 36.9%이었음.

- 자주 혹은 정기적(거의매일~한달에 1~2회)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81.5%), 공동육아나눔터(68.9%), 다문화특성화사업(59.6%),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58.7%)등 이었고, 필요할 때마다 선택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는 상담프로그램(48.0%), 문화프로그램(45.5%), 교육프로그램(44.1%)등 이었음.

<그림 2-1> 코로나19 확산 이전 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이용 빈도  
(Base : 코로나19 이전 센터 이용 경험자, n=714, 단위 : %)



### 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빈도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빈도는 이전보다 이용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77.7%, 이용 빈도 변화 없음이 15.1%, 이용 빈도가 증가가 7.2%로 조사됨

- 성별로는 이용빈도가 감소했다고 한 여성이 79.1%, 남성이 70.3%로 여성의 이용빈도 감소했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3.6%, 30대가 74.5%, 40대가 79.8%, 50대 이상이 81.8%로 이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주로 자녀돌봄영역으로 서비스가 집중되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9>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이용 빈도 비교

(Base : 코로나19 이전/이후 이용 경험자, n=404, 단위 : %)

	사례수	이전보다 이용빈도가 증가함		변화없음		이전보다 이용빈도가 감소함		
		N	%	N	%	N	%	
전체	(404)	29	7.2	61	15.1	314	77.7	
성별	남성	(64)	4	6.3	15	23.4	45	70.3
	여성	(340)	25	7.4	46	13.5	269	79.1
연령대	20대 이하	(11)	1	9.1	3	27.3	7	63.6
	30대	(141)	14	9.9	22	15.6	105	74.5
	40대	(208)	14	6.7	28	13.5	166	79.8
	50대 이상	(44)	0	0.0	8	18.2	36	81.8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빈도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외출 자제가 74.8%(1순위)로 가장 높으며,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외출 자제라는 이유가 87.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대면 이용 가능 서비스가 적음(51.3%)순으로 나타남.

<표 2-10>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 빈도 감소 이유(1+2순위)

(Base : 코로나19 이전/이후 이용 빈도 감소한 경우, n=314, 단위 : 명, %)

	사례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비대면 이용 가능 서비스가 적음		지역센터 공간의 안전 우려		감염위험으로 가정방문 꺼려짐		센터까지 이동 시 감염 위험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314)	276	87.9	161	51.3	57	18.2	41	13.1	55	17.5	37	11.8	
성별	남성	(45)	41	91.1	18	40.0	9	20.0	6	13.3	8	17.8	8	17.8
	여성	(269)	235	87.4	143	53.2	48	17.8	35	13.0	47	17.5	29	10.8
연령대	20대 이하	(7)	6	85.7	3	42.9	1	14.3	0	0.0	3	42.9	1	14.3
	30대	(105)	89	84.8	54	51.4	25	23.8	17	16.2	18	17.1	7	6.7
	40대	(166)	148	89.2	95	57.2	23	13.9	19	11.4	23	13.9	23	13.9
	50대 이상	(36)	33	91.7	9	25.0	8	22.2	5	13.9	11	30.6	6	16.7
다문화가족 여부	예	(86)	78	90.7	30	34.9	14	16.3	18	20.9	21	24.4	11	12.8
	아니오	(228)	198	86.8	131	57.5	43	18.9	23	10.1	34	14.9	26	11.4
한부모가족 여부	예	(29)	25	86.2	10	34.5	7	24.1	8	27.6	5	17.2	3	10.3
	아니오	(282)	248	87.9	149	52.8	50	17.7	32	11.3	50	17.7	34	12.1



## 2.6 요약

- 코로나19 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센터를 직접적으로 내방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열릴 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었음. 센터를 방문하는 서비스 중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음. 즉, 공간을 활용한 자발성이 강한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의 문제로 인해 직접 센터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직접센터로 방문하는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률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 이용자의 과반(51.3%)에 해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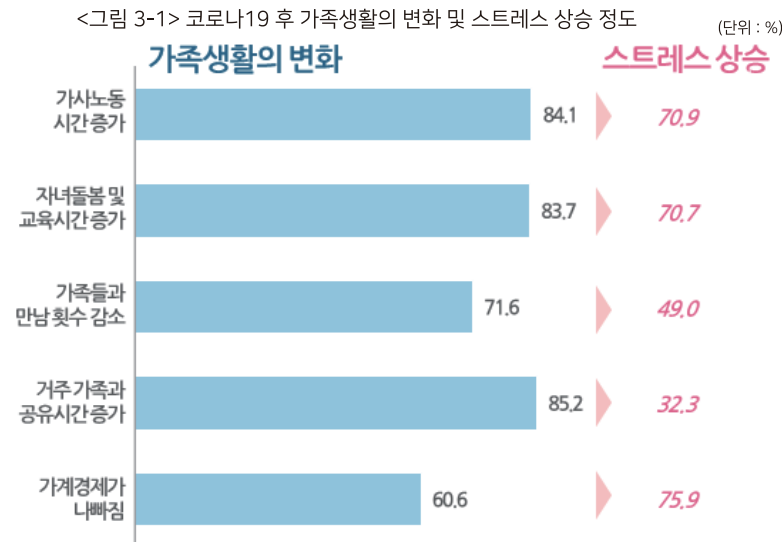
## 3. 조사결과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와 적응

### 3.1.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 및 스트레스 상승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살펴보았음. 변화의 경험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공유시간 증가한 경우(85.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84.1%), 자녀돌봄 및 교육 시간의 증가(8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는 가계경제가 나빠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75.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사노동 시간 증가(70.9%), 자녀돌봄 및 교육 시간 증가(70.7%)로 조사됨

- 한편, 가계경제가 나빠짐을 경험한 경우는 60.6%로 변화를 경험한 비율은 타 가정생활에 비해서 제일 낮았으나 경험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가장 높았음. 또한 가족들과의 공유시간이 증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스트레스를 느낀 정도는 32.3%로 가장 낮았음.



- 가사노동 증가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응답자의 70.9%였고, 여성이 72.9%, 남성은 46.0%로 26.9%p 더 높았음.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20대 이하는 61.1%, 30대는 74.1%, 40대 72.5%, 50대 이상은 45.2%로 30~40대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았음.

- 자녀돌봄 및 교육시간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0.7%로 여성의 73%가 그렇다고 생각해 남성의 46.6%보다 26.4%p 더 높았음. 연령대별로는 40대(73.1%), 30대(71.5%), 20대이하(61.1%), 50대 이상(53.2%)의 순이었음.

- 비동거가족만남 횟수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람은 49%였고, 이 변화의 경우 다문화가족이 53.3%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48%에 비해 5.3%p 높았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가족과 공유시간이 증가한 것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32.3%였고, 성별로는 여성(33.1%)이 남성(24.7%)에 비해 높았음. 가족유형별로 다문화가족(32.9%)이 그렇지 않은 경우(32.3%)보다, 한부모가족(36.1%)이 그렇지 않은 경우(31.8%)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약간 높았음.

- 가계경제악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75.9%로 여성(77.5%)이 남성(63.8%)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89.5%), 40대(79.6%), 30대(73.0%), 50대이상(63.2%)의 순이었음.

<표 3-1>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그렇다

(n=84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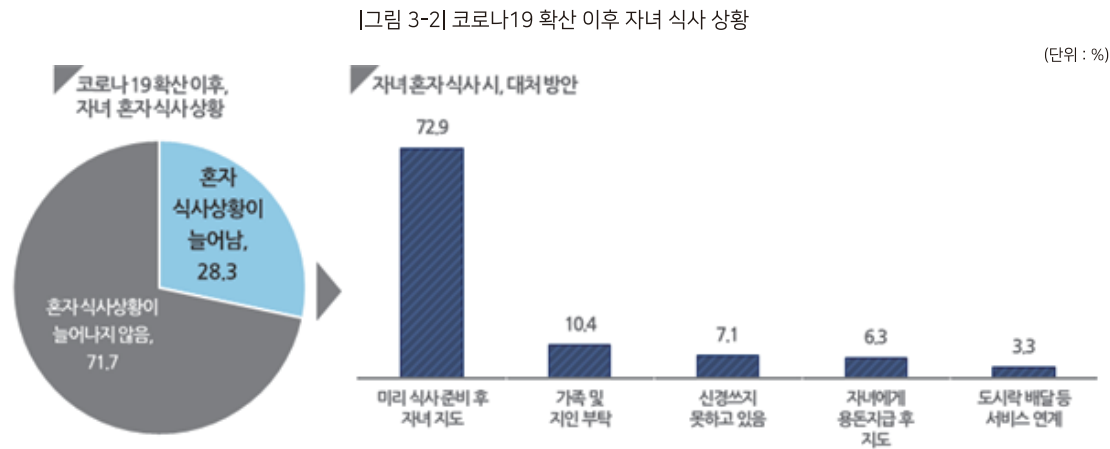
		가사노동증가		자녀돌봄 및 교육시간 증가		가족만남횟수 감소		가족과공유시간 증가		가계경제 악화	
		N	%	N	%	N	%	N	%	N	%
전체		(841)	70.9	(837)	70.7	(716)	49.0	(852)	32.3	(606)	75.9
성별	남성	(63)	46.0	(73)	46.6	(66)	40.9	(85)	24.7	(69)	63.8
	여성	(778)	72.9	(764)	73.0	(650)	49.8	(767)	33.1	(537)	77.5
연령대	20대 이하	(18)	61.1	(18)	61.1	(23)	56.5	(20)	30.0	(19)	89.5
	30대	(343)	74.1	(344)	71.5	(296)	51.7	(338)	29.6	(226)	73.0
	40대	(418)	72.5	(413)	73.1	(341)	46.9	(423)	36.6	(304)	79.6
	50대 이상	(62)	45.2	(62)	53.2	(56)	44.6	(71)	19.7	(57)	63.2
다문화가족 여부	예	(132)	62.1	(131)	56.5	(135)	53.3	(158)	32.9	(136)	74.3
	아니오	(707)	72.6	(704)	73.4	(579)	48.0	(691)	32.3	(467)	76.4
한부모가족 여부	예	(63)	68.3	(60)	65.0	(57)	45.6	(61)	36.1	(57)	75.4
	아니오	(770)	71.2	(769)	70.9	(652)	48.9	(784)	31.8	(543)	75.7



### 3.2. 자녀 혼자 식사 상황 및 대처 방안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자녀 혼자 식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증가한 경우는 28.3%로 조사됨.

- 자녀 혼자 식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은, 미리 식사 준비 후 자녀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72.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및 지인 부탁(10.4%),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음(7.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3.3. 코로나19확산 이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징후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 및 양육 태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 대상 훈육 및 부정적 감정의 표현 횟수 증가가 49.4%, 가족대상 부정적 감정표현이 증가했다고 한 경우가 48.0%, 배우자 대상 부정적 감정 표현이 증가했다는 경우가 44.1%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징후가 나타남.

#### 가. 자녀 신체적 훈육 및 부정적 감정 표현 증가

- 유자녀자 951명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에게 신체적 훈육 및 짜증, 큰소리로 야단 치는 횟수가 많아졌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49.4%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2.5%였던 데 반해, 여성은 52.7%였음. 연령대로 살펴볼 경우 40대가 59.1%로 가장 높고, 30대 54.3%로 해당 연령의 과반이 경험하였고 20대 이하는 38.1%, 50대는 6.2%로 낮았음.

<표 3-2> 코로나19 이후 자녀 대상 신체적 훈육 및 짜증/야단 횟수 증가

(n=951, 단위: 명, %)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긍정 (③+⑤) %	보통 ③ %	부정 (①+②) %	
		N	%	N	%	N	%	N	%	N	%				
		전체	951	57	6.0	160	16.8	264	27.8	347	36.5				123
성별	남성	102	19	18.6	30	29.4	30	29.4	17	16.7	6	5.9	22.5	29.4	48.0
	여성	849	38	4.5	130	15.3	234	27.6	330	38.9	117	13.8	52.7	27.6	19.8
연령대	20대 이하	21	1	4.8	3	14.3	9	42.9	6	28.6	2	9.5	38.1	42.9	19.0
	30대	392	13	3.3	60	15.3	106	27.0	149	38.0	64	16.3	54.3	27.0	18.6
	40대	381	27	7.1	80	21.0	126	33.1	172	45.1	53	13.9	59.1	33.1	28.1
	50대 이상	385	16	4.2	17	4.4	23	6.0	20	5.2	4	1.0	6.2	6.0	8.6

#### 나. 배우자 대상 부정적 감정 표현 증가

- 유배우자 911명에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우자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졌냐고 질문하였을 때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4.1%였음.

-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남성이 20.2%, 여성이 42.9%로 2배 이상 많았음.

-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52.3%, 20대 이하가 43.5%, 40대 42.2%, 50대 이상은 14.7%로 나타났음.

<표 3-3> 코로나19 이후 배우자 대상 부정적 감정표현 증가

(n=911, 단위: 명, %)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긍정 (③+⑤) %	보통 ③ %	부정 (①+②) %	
		N	%	N	%	N	%	N	%	N	%				
		전체	911	57	6.3	161	17.7	291	31.9	298	32.7				104
성별	남성	119	23	19.3	30	25.2	34	28.6	19	16.0	5	4.2	20.2	28.6	44.5
	여성	881	34	3.9	131	14.9	257	29.2	279	31.7	99	11.2	42.9	29.2	18.7
연령대	20대 이하	23	0	0.0	6	26.1	7	30.4	7	30.4	3	13.0	43.5	30.4	26.1
	30대	377	13	3.4	57	15.1	110	29.2	135	35.8	62	16.4	52.3	29.2	18.6
	40대	436	31	7.1	77	17.7	144	33.0	148	33.9	36	8.3	42.2	33.0	24.8
	50대 이상	75	13	17.3	21	28.0	30	40.0	8	10.7	3	4.0	14.7	40.0	45.3

다. 가족 대상 부정적 감정 표현 증가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나 배우자 등을 포함해서 가족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48.0%로 자녀나 배우자로 특정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24.4%, 여성이 51.2%로 두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54.0%), 40대(48.0%), 20대이하(42.9%), 50대 이상(24.2%)으로 나타났음.

<표 3-4> 코로나19 이후 가족 대상 짜증/화 내는 횟수 증가

(n=1,000, 단위 : 명, %)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긍정	보통	부정	
		N	%	N	%	N	%	N	%	N	%	(③+⑤)	③	(①+②)	
													%	%	%
전체	(1000)	71	7.1	159	15.9	290	29.0	362	36.2	118	11.8	48.0	29.0	23.0	
성별	남성	(119)	29	24.4	27	22.7	34	28.6	21	17.6	8	6.7	24.4	28.6	47.1
	여성	(881)	42	4.8	132	15.0	256	29.1	341	38.7	110	12.5	51.2	29.1	19.8
연령대	20대 이하	(28)	0	0.0	5	17.9	11	39.3	11	39.3	1	3.6	42.9	39.3	17.9
	30대	(400)	15	3.8	53	13.3	116	29.0	153	38.3	63	15.8	54.0	29.0	17.0
	40대	(477)	36	7.5	81	17.0	131	27.5	182	38.2	47	9.9	48.0	27.5	24.5
	50대 이상	(95)	20	21.1	20	21.1	32	33.7	16	16.8	7	7.4	24.2	33.7	42.1

3.4.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 예상

가. 고용 불안정성 증가

- 코로나19 이후 고용 불안정성은 응답자의 86.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에 동의하는 경우는 성별로는 여성이 88.8%로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89.3%), 30대(86.0%), 20대이하(78.6%), 50대 이상(75.8%)의 순이었음.

나. 공교육 위력 약화 및 사교육 강화

-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위력이 약화되고, 사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7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여성(78.9%)이 남성(61.3%)에 비해 공교육이 약해지고 사교육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40대(81.8%), 30대(74.5%), 50대 이상(67.4%), 20대 이하(57.1%) 순이었음.

다. 감염병의 일상화로 가족여가 및 문화생활 위축

- 코로나19 이후 가족 여가 및 문화 생활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에 89.4%가 그렇다고 동의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91%가 동의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90.6%), 30대(90.0%), 50대 이상(84.2%), 20대 이하(78.6%)의 순이었음.

라. 가정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대

- 코로나19 이후 가정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대는 80.4%가 동의한 가운데, 여성들은 82.4%가 남성들은 65.5%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40대(83.0%), 30대(80.3%), 50대 이상(72.6%), 20대 이하(64.3%) 순이었음.

마.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증가

-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증가는 80.6%가 동의한 가운데, 여성(84.6%)이 남성(51.3%)에 비해 33.3%p나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84.3%), 30대(79.5%), 20대이하(71.4%), 50대 이상(69.5%) 순이었음.

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

-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할 것이라고 84.9%가 예상하였으며, 여성(86.0%), 40대(86.8%)가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표 3-5>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예상-그렇다(%)

(n=1,000, 단위 : 명, %)

	사례수	가. 고용불안정성 증가	나. 공교육위력 약화 및 사교육 강화	다. 가족여가 및 문화생활 위축	라. 가정생활 중심 라이프스타일 확대	마.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바. 가족공유시간 증가	
		%	%	%	%	%	%	
전체	(1000)	86.4	76.8	89.4	80.4	80.6	84.9	
성별	남성	(119)	74.8	61.3	79.0	65.5	51.3	76.5
	여성	(881)	88.0	78.9	90.8	82.4	84.6	86.0
연령대	20대 이하	(28)	78.6	57.1	78.6	64.3	71.4	78.6
	30대	(400)	86.0	74.5	90.0	80.3	79.5	84.8
	40대	(477)	89.3	81.8	90.6	83.0	84.3	86.8
	50대 이상	(95)	75.8	67.4	84.2	72.6	69.5	77.9
다문화가족 여부	예	(208)	76.0	66.3	79.8	71.2	65.4	78.8
	아니오	(788)	89.3	79.7	92.1	83.2	84.9	86.8
한부모가족 여부	예	(84)	83.3	67.9	85.7	67.9	72.6	71.4
	아니오	(907)	86.7	77.8	89.6	81.7	81.4	86.2

### 3.5 요약

-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비동거가족과의 공유시간, 동거가족과의 공유시간, 가계경제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가족생활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생긴 가정생활의 변화로 인해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가장 발생빈도가 적었던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스트레스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유시간 증가를 경험한 가족은 많았으나 스트레스 경험자는 가장 낮았음

- 또한 유자녀 가구 중 학교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자녀의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28%로 정기적인 시간에 영양을 갖춘 식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자연스럽게 아동방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해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자녀 가구의 거의 절반(49.4%)이 자녀 대상 신체적 훈육 및 부정적 감정 표현이 증가했으며, 가족원에게 짜증이나 화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48%, 배우자에게 대한 부정적 반응이 44.1%로 나타났음. 또한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이나 가사노동 등 여성들의 책임회귀가 가중된 것이 그 원인으로 추론됨.

-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고용불안정성 증가, 공교육 위력약화 및 사교육강화, 가정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증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이는 앞서 가족생활의 변화와 적응스트레스 결과로 볼 때 자칫하면 여성이나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별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성평등적인 서비스와 사회인프라가 필요해보임.

## 4. 조사결과 : 코로나19 확산 이후 센터의 서비스 제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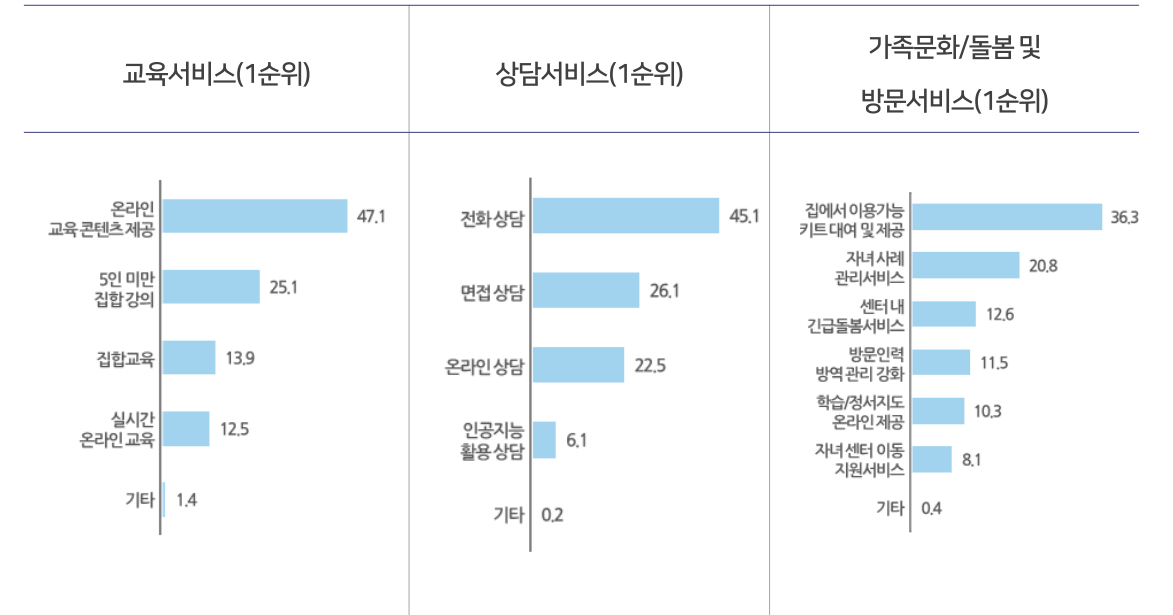
### 4.1.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원 서비스 선호 방식

-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원 서비스 유형별 선호 방식을 알아본 결과, 교육, 상담, 문화/돌봄서비스 모두에서 비대면적인 방식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교육 서비스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서비스는 전화 상담이 45.1%, 가족문화 프로그램, 돌봄/방문 서비스는 집에서 이용 가능 키트 대여 및 제공이 36.3%로 나타났음.

<그림 4-1> 가족지원서비스 선호 방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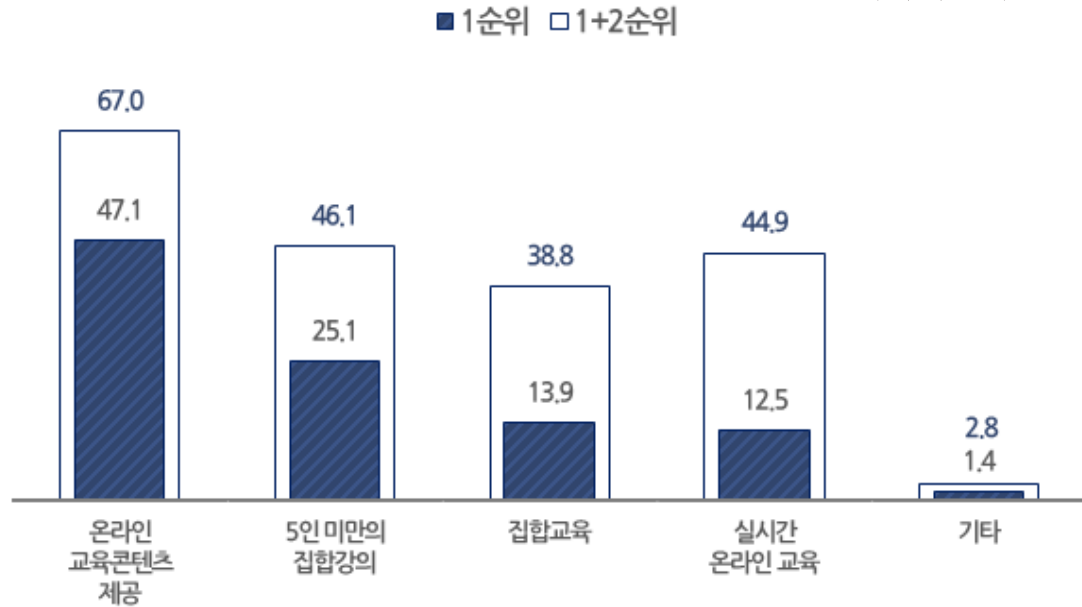
#### 가. 교육서비스 선호 방식

-코로나19 이후 센터에서의 부모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의 교육 서비스 제공 시 선호하는 진행 방식은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이 47.1%(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인 미만 집합 강의(25.1%), 집합 교육(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한 경우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이 67.0%(1순위+2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인 미만 집합강의(46.1%), 실시간 온라인 교육(44.9%)로 나타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4-2> 코로나19 이후 교육서비스 선호 방식

(n=1,000, 단위 : %)



-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육서비스 선호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은 여성(67.7%)이 남성(67.0%)에 비해 약간 더 선호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선호도가 69.0%로 가장 높은 가운데 큰 차이 없이 고른 선호도를 보임.

- 5인 미만 집합강의 경우 남성의 선호도 비율이 47.9%로 여성의 45.9%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여성의 선호도가 46.0%로 남성의 37.0%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7.5%로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고른 선호도를 보임. 다문화가족의 경우 46.6%가 이 방법에 선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인 44.5%보다 약간 높았고,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47.6%가 선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인 44.9%에 비해 역시 약간 선호도가 높았음.

- 집합 교육은 남성의 선호도가 51.3%로 여성의 37.1%에 비해 높았음. 또한 50대 이상의 선호가 49.5%로 가장 두드러졌으나 전반적으로 선호도는 가장 낮았음. 한편, 다문화가족의 경우인 경우 47.1%가 선호도를 보여 그렇지 않은 경우인 36.8%에 비해 10.3%p가 높았으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45.2%가 선호하여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인 38.0%에 비해 7.2%p 높았음.

<표 4-1> 코로나19 이후 교육서비스 선호 방식(1+2순위)

(n=1,000, 단위 : 명, %)

	사례수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5인 미만 집합강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기타		
		N	%	N	%	N	%	N	%	N	%	
전체	(1000)	670	67.0	461	46.1	449	44.9	388	38.8	28	2.8	
성별	남성	(119)	74	62.2	57	47.9	44	37.0	61	51.3	2	1.7
	여성	(881)	596	67.7	404	45.9	405	46.0	327	37.1	26	3.0
연령대	20대 이하	(28)	18	64.3	14	50.0	13	46.4	11	39.3	0	0.0
	30대	(400)	276	69.0	183	45.8	190	47.5	140	35.0	11	2.8
	40대	(477)	315	66.0	223	46.8	207	43.4	190	39.8	15	3.1
	50대 이상	(95)	61	64.2	41	43.2	39	41.1	47	49.5	2	2.1
거주 지역	경인권	(464)	316	68.1	206	44.4	238	51.3	160	34.5	7	1.5
	경상권	(255)	175	68.6	116	45.5	100	39.2	108	42.4	10	3.9
	전라권	(94)	55	58.5	51	54.3	30	31.9	49	52.1	3	3.2
	충청권	(124)	81	65.3	57	46.0	59	47.6	43	34.7	6	4.8
강원도/제주도	(63)	43	68.3	31	49.2	22	34.9	28	44.4	2	3.2	
다문화가족 여부	예	(208)	130	62.5	88	42.3	97	46.6	98	47.1	3	1.4
	아니오	(788)	536	68.0	370	47.0	351	44.5	290	36.8	25	3.2
한부모가족 여부	예	(84)	49	58.3	39	46.4	40	47.6	38	45.2	1	1.2
	아니오	(907)	616	67.9	416	45.9	407	44.9	345	38.0	2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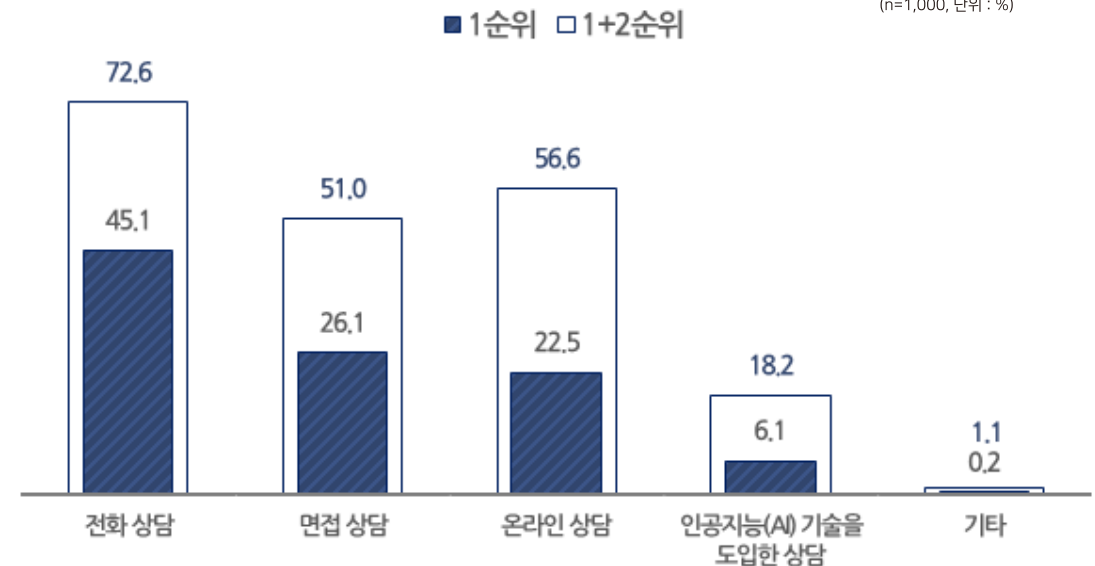
나. 상담서비스 선호 방식

- 코로나19 이후 센터에서의 부부 상담, 부모-자녀 상담 등 상담 서비스 제공 시 선호하는 진행 방식은 전화 상담이 45.1%(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면접 상담(26.1%), 온라인 상담(2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한 경우 전화 상담이 72.6%(1순위+2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상담(56.6%), 면접 상담(51.0%)으로 나타나, 비대면 상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코로나19 이후 상담서비스 선호 방식

(n=1,000, 단위 : %)



-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담서비스 선호 방식으로 '전화 상담'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여성(73.3%)이 남성(69.7%)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75.0%)가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고르게 높았음. 지역적으로는 경상권(7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한부모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82.1%가 이 방식에 선호를 보였고, 아닌 경우에는 71.8%로 선호도 차이가 있었음.

- 온라인 상담의 경우 1,2순위를 고려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방식이었고, 여성이 58.7%로 남성(41.2%)에 비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음(61.3%). 지역적으로는 경인권(62.7%)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었음.

- 면접상담의 경우에는 51.0%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였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상담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과반의 지지를 받음. 남성이 68.9%로 여성 48.6%에 비해 이 방식의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선호도가 각각 68.4%와 64.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음. 지역별로는 전라권의 선호도가 62.8%로 가장 높았음. 또한 다문화가족인 경우(63.0%) 그렇지 않은 경우(48.1%)보다 선호도가 높았음.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도 60.7%가 선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 49.9%보다 높았음.

- 챗봇 등 AI를 활용한 상담은 가장 선호도가 낮은 비대면 상담방식이었음. 성별이나 연령대별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었음.

<표 4-2> 코로나19 이후 상담서비스 선호 방식(1+2순위) (n=1,0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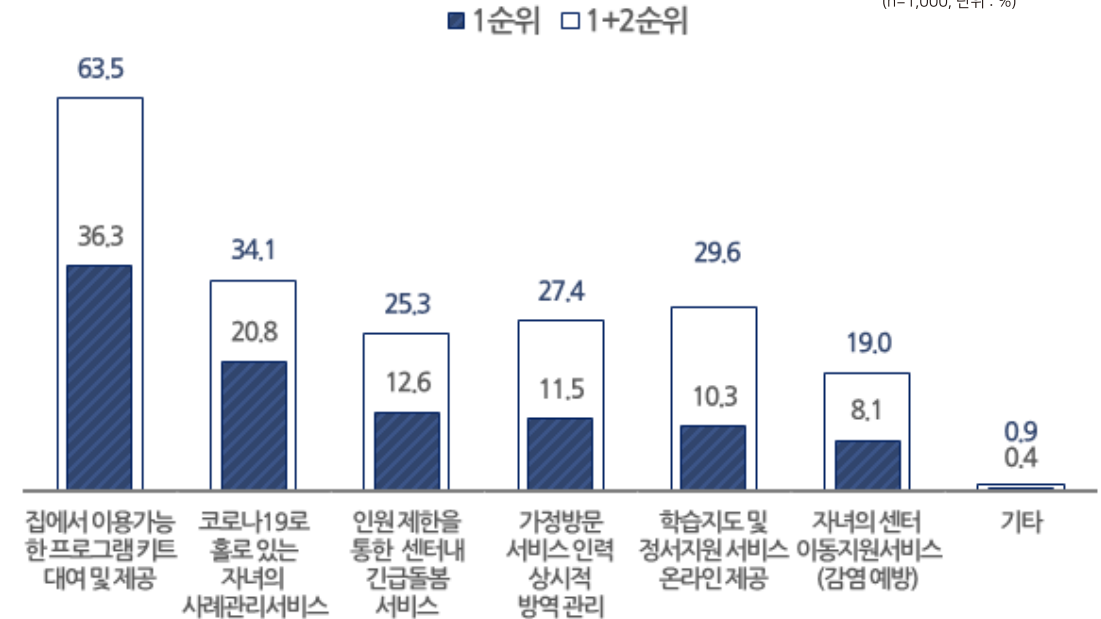
	사례수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면접 상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한 상담		기타		
		N	%	N	%	N	%	N	%	N	%	
전체	(1000)	726	72.6	566	56.6	510	51.0	182	18.2	11	1.1	
성별	남성	(119)	83	69.7	49	41.2	82	68.9	23	19.3	1	0.8
	여성	(881)	643	73.0	517	58.7	428	48.6	159	18.0	10	1.1
연령대	20대 이하	(28)	21	75.0	12	42.9	18	64.3	4	14.3	1	3.6
	30대	(400)	285	71.3	245	61.3	176	44.0	90	22.5	2	0.5
	40대	(477)	352	73.8	266	55.8	251	52.6	74	15.5	8	1.7
	50대 이상	(95)	68	71.6	43	45.3	65	68.4	14	14.7	0	0.0
거주 지역	경인권	(464)	328	70.7	291	62.7	223	48.1	83	17.9	2	0.4
	경상권	(255)	194	76.1	132	51.8	139	54.5	41	16.1	3	1.2
	전라권	(94)	70	74.5	38	40.4	59	62.8	18	19.1	2	2.1
	충청권	(124)	89	71.8	67	54.0	59	47.6	28	22.6	3	2.4
다문화가족 여부	강원도/제주도	(63)	45	71.4	38	60.3	30	47.6	12	19.0	1	1.6
	예	(208)	156	75.0	94	45.2	131	63.0	32	15.4	2	1.0
한부모가족 여부	아니오	(788)	567	72.0	468	59.4	379	48.1	149	18.9	9	1.1
	예	(84)	69	82.1	34	40.5	51	60.7	13	15.5	0	0.0
한부모가족 여부	아니요	(907)	651	71.8	528	58.2	453	49.9	167	18.4	11	1.2

다. 가족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 서비스 선호 방식

- 코로나19 이후 센터에서의 가족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 서비스 제공 시 선호하는 진행 방식은 집에서 이용 가능한 키트 대여 및 제공이 36.3%(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사례관리 서비스(20.8%), 인원 제한을 통한 센터 내 긴급돌봄(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한 경우 집에서 이용 가능한 키트 대여 및 제공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혼자 있어야 하는 자녀의 사례관리 서비스(34.1%),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서비스 온라인 제공(29.6%)로 나타남.

<그림 4-4> 코로나19 이후 가족문화프로그램 및 돌봄, 방문 서비스 선호 방식 (n=1,000, 단위: %)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 서비스 선호 방식으로 '프로그램 키트 대여 및 제공'을 선호한 비율은 63.5%인 가운데 여성들의 66.7%가 선호하였음. 남성들은 39.5%만이 선호를 보여 큰 차이를 보임.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75.0%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이상이 48.4%로 가장 낮음. 지역별로는 경인권이 65.9%로 가장 높았음.

- 개학연기나 매일 등교하지 않게 됨에 따라 혼자 있어야 하는 자녀들의 사례관리서비스의 경우 34.1%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성별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5.3%로 선호도가 높았음. 거주지역으로는 강원도/제주도가 47.6%로 높았고, 한부모가족의 52.4%가 선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의 32.2%에 비해 20.2%p 높은 비율을 보임.



- 방문교육사업이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29.6%의 선호도를 보였고, 남성(40.3%)들이 여성들(28.1%)에 비해 더 선호하는 방식이었음. 연령별로는 40대~50대 이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며, 거주지역으로는 강원도/제주도(33.3%), 경인권(32.1%)의 선호도가 높았음.

- 가정방문이나 공동육아나눔터를 그대로 이용하되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에는 27.4%의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긴급돌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37.0%로 여성(26.1%)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음.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42.9%로 가장 높았음. 거주지역으로는 전라권(33%)과 경상권(32.2%)의 선호도가 높았고 다문화가족인 경우(33.2%)와 한부모가족(34.5%)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호도가 높았음.

-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25.3%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30대가 타 연령대의 이용자에 비해 선호도가 32.5%로 가장 높았음.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지원서비스의 선호도는 19.0%로 제시된 방식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성별로는 남성들의 26.1%가 선호하여 여성들보다 높았고, 다문화가족(25.5%)과 한부모가족(22.6%)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두 선호도가 높았음.

<표 4-3> 코로나19 이후 가족문화프로그램 및 돌봄, 방문 서비스 선호 방식(1+2순위) (n=1,000, 단위: 명, %)

	사례수	프로그램 키트 대여 및 제공		자녀의 사례 관리서비스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온라인 제공		공육/방문 인력 상시적 방역 관리		긴급돌봄 서비스		자녀의 센터 이동지원 서비스		기타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000)	635	63.5	341	34.1	296	29.6	274	27.4	253	25.3	190	19.0	9	0.9	
성별	남성	(119)	47	39.5	39	32.8	48	40.3	44	37.0	28	23.5	31	26.1	1	0.8
	여성	(881)	588	66.7	302	34.3	248	28.1	230	26.1	225	25.5	159	18.0	8	0.9
연령대	20대 이하	(28)	21	75.0	6	21.4	7	25.0	12	42.9	5	17.9	5	17.9	0	0.0
	30대	(400)	257	64.3	130	32.5	98	24.5	109	27.3	130	32.5	74	18.5	1	0.3
	40대	(477)	311	65.2	162	34.0	158	33.1	125	26.2	103	21.6	88	18.4	7	1.5
	50대 이상	(95)	46	48.4	43	45.3	33	34.7	28	29.5	15	15.8	23	24.2	1	1.1
거주 지역	경인권	(464)	306	65.9	152	32.8	149	32.1	118	25.4	118	25.4	80	17.2	5	1.1
	경상권	(255)	163	63.9	86	33.7	67	26.3	82	32.2	62	24.3	49	19.2	0	0.0
	전라권	(94)	58	61.7	33	35.1	25	26.6	31	33.0	23	24.5	17	18.1	0	0.0
	충청권	(124)	72	58.1	40	32.3	34	27.4	34	27.4	36	29.0	28	22.6	4	3.2
	강원도/제주도	(63)	36	57.1	30	47.6	21	33.3	9	14.3	14	22.2	16	25.4	0	0.0
다문화가족 여부	예	(208)	101	48.6	73	35.1	41	19.7	69	33.2	75	36.1	53	25.5	2	1.0
	아니오	(788)	531	67.4	268	34.0	211	26.8	203	25.8	221	28.0	135	17.1	7	0.9
한부모가족 여부	예	(84)	43	51.2	44	52.4	11	13.1	29	34.5	21	25.0	19	22.6	1	1.2
	아니오	(907)	585	64.5	292	32.2	242	26.7	242	26.7	275	30.3	168	18.5	8	0.9

## 4.2 요약

- 코로나19 이전 센터로 방문에서 이용한 서비스가 가장 높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교육, 상담/ 돌봄/ 문화 관련 서비스의 선호방식에서 모두 비대면적인 방식의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비교적 전통적인 사업방식인 집합교육이나 면접상담 등의 수요 또한 비교적 높았고 특히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선호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II. 코로나19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방향

### 1. 주요결과

#### 1.1 이용행태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이용률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였음. 감소의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시민의식발휘, 안전확보 보장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 것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센터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이 가장 많았음.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용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공동육아나눔터였음. 즉, 공동육아나눔터는 센터의 내부형 혹은 외부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간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프로그램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만큼 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주요 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었음.

- 지역 센터는 직접 센터 방문을 제외하고도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 코로나19 확산이전에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비율이 27.2%였으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는 43.1%로 증가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들은 서비스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한 서비스 이용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용률의 감소비율이 크지 않았는데 가족역량강화 사례관리서비스 특성상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하다는 점, 정보제공 등 비대면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들 가족들이 지역 내 네트워크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코로나19 확산이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임.

## 1.2 가족생활의 적응과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가사노동, 돌봄노동시간, 비동거가족, 동거가족과의 공유시간, 가계경제 등 총 5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시간 증가, 비동거가족과의 접촉 감소, 동거가족과의 공유시간 증가, 가계경제 불안 등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가계경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60.6%라고 응답하여 다섯가지 변화 중 경험률은 가장 낮았던 반면 스트레스 상승을 경험한 사람은 75.9%로 가장 높았는데, 향후 응답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사회변화를 예상하는 비율이 86.4%로 높아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가족생활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적응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던 가운데 자녀(신체적 훈육 포함)나 배우자, 가족원들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증가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0~40대의 연령대에 있는 이용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또한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자녀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27%로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3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많은 사업 중에서도 주로 교육, 상담이나 문화/돌봄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이에 대한 선호방식을 살펴 보았을 때 전 영역에서 모두 비대면 방식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접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화상담에서 심층적인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상담서비스, 가정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었으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 여전히 있어 이를 적절히 조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서비스 방향

### 2.1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대응서비스 강화 : 아동 대상 전화모니터링 등 사례관리강화

-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연기로 인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이 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생활, 식사 등 생활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지고 있음. 본 조사에서 특히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훈육이나 짜증내는 횟수가 20대 이하가 38.1%, 30~40대서는 54~59% 였던데 반해 50대 이상에서는 6.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았음.

-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는 이미 배움지도사나 키움보듬이 파견사업이 있으나 가정내 파견이 여의치 못한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함. 이미 사례관리 가정과 라포가 형성된 배움지도사나 키움보듬이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으로 파견하지 않더라도 식사, 교육 등 아동의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로 홀로 있는 자녀의 사례관리 서비스는 돌봄/문화, 방문 서비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서비스방식이었고, 온라인을 통한 학습/정서지도 서비스는 세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서비스 방식이었음.

- 한편, 전국 76개소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긴급돌봄서비스는 47개소에서 서비스 이용이 있었으며 3월 9일부터 6월 4일 현재까지 약 3개월간의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총 454명이었고, 연인원으로는 총 7,811명이었음(한국건강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20).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녀의 방임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이용자의 25.3%가 선호한 방식이었음. 이를 위해서 한가원은 이 시기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의 프로파일을 확보하여 향후 이러한 서비스에 좀더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공동육아나눔터의 입지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2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족센터SOC 공간배치 모델화 및 공육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특성화사업으로 시행되어 전국에 278개소(2020.6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대표 사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의미있는 이유는 공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 품앗이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임.

-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센터SOC 사업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의 지침보다 33m<sup>2</sup>가 넓게 필수 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가족센터 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이 이루어질 다목적소통교류공간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이용시설이 될 전망이다.

- 감염병 상황에서는 방역, 거리두기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면 공적인 돌봄서비스로서 향후 더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설치 시 적절한 공간, 1층으로의 전진배치를 통해 휴관시 부분 운영에 적합하게 할 것, 영유아 중심에서 초등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등의 확장이 필요함.

- 특히 다목적 소통교류 공간에서 온라인 등 학습기능을 갖추어 연접하여 설치할 시 다양한 돌봄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3 30~40대 양육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서비스 제공

- 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향후 사회변화의 전망에서는 가족여가 및 문화생활은 위축될 것으로, 가정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의 확대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30~40대의 동의 응답률이 타 연령대보다 높았음. 음. 이를 반영하듯 가족문화/돌봄/가정방문 서비스와 관련하여 집에서 이용가능한 키트대여 및 제공에 대한 수요가 63.5%로 가장 높았음.

- 이번 실태조사의 응답자의 사회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30~40대 이용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번 조사를 통해 가족의 공유시간이 증가한 것은 다른 생활의 변화에 비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이 32.3%로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30~40대 연령의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원들에 대한 짜증이나 화내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나 공동체형성을 통한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서비스가 매우 필요함. 따라서 키트를 활용하더라도 (방역대책이 마련된) 공간제공 서비스와 같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모든 가족의 변화양상에 대해 성별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자녀돌봄이나 가사노동 조정, 가계경제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성평등한 돌봄과 가족문화 서비스를 위한 인식개선 서비스, 공적인 돌봄서비스, 영세자영업자 등의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2.4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 교육서비스의 선호방식으로서 온라인 컨텐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음. 그간 교육서비스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였지만 강사풀이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며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며 좀더 양질의 교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가원은 코로나19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교육, 아이돌보미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전면적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임.

- 이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의미하고, 동시 접속 및 다양한 의견교환, 서비스 이용이력 등을 통해 관심분야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나 가족센터SOC 사업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소통공간의 활용 등을 통해 환경 구축과 함께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 2.5 전통적 교육과 상담 방식의 발전적 유지

- 비대면 서비스의 선호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 오프라인 교육, 면접상담, 방역관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등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족형태별로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들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음.

- 따라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좀 더 참여가 보장되는 소규모 교육,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는 센터 방문 면접상담 등의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지역에서 개발하기는 쉽지않은 만큼 개발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토론과 실습, 지역 맞춤형 집중화된 서비스 등을 통해 좀더 지역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바로 면접상담을 위한 비밀차단 시설, 패밀리넷의 온라인 상담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온라인으로 면접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설 보완을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토론1]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

강주현 센터장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영역별 비대면사업 추진사례

영역	사업명/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가족 관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li> <li>• 온라인콘텐츠 시청 후 희망가정에 대해 비대면 심화프로그램 진행 (소그룹 양육코칭, 동영상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li> <li>• 참여시간,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계획대비 더 많은 가정이 참여</li> </ul>	
		아동기부모교실		
		청소년기부모교실		
	부모역할지원	부모역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부모 및 자녀스트레스, 자녀스트레스와 대처방안 교육, 부모-자녀놀이활동</li> <li>• 부모-자녀 양육부담에 대한 교육</li> </ul>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서부교육청과 함께 하는 부모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교육지원청 연계하여 진행</li> <li>• 부모교육 관련 저명인사가 진행하는 온라인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플랫폼에 게시</li> <li>• 유튜브를 활용하여 매주 1회 총 4회 강연 업로드</li> </ul>	
	아버지역할 지원사업	서대문아버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빠-자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체험활동 (목공예, 드림캐처, 무드등 만들기)</li> <li>• 자조모임활동 (캠핑에서 먹고싶은 요리만들기, 일요일은 아빠가 요리사!!)</li> </ul>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역량강화교육</li> <li>• 자녀와함께하는성교육, 책놀이교육</li> <li>• 아빠-자녀 놀이활동</li> <li>• 참여자의 경우 가정에서 참여</li> </ul>	강사가 본인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놀이활동 직접 시연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슬기로운 초등입학준비(미취학자녀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예비학부모대상 교육</li> <li>• 소그룹으로 진행하여 양육코칭을 통해 개별적인 자녀양육지도</li> <li>• 놀이를 통한 자녀학습지도방법교육</li> </ul>	
		학교다녀오겠습니다 (학령기자녀 가정)	동화책만들기, 키트제작 활동을 통한 부모-자녀상호작용증진 자녀지도방법에 대한 소그룹 코칭활동	
		남성양육자 생애주기별교육	다문화가정 남성양육자의 경우 센터에 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 모집이 다소 수월하였음.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사회성발달프로그램	미술활동을 통한 사회성발달프로그램으로 진행	
		미래설계프로그램	직업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키트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부모-자녀상호작용	놀이활동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활용프로그램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활동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가족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임신·출산갈등상담		미혼한부모 대상 자기이해증진, 자존감향상		

가족 돌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례관리가정 대상 부모-자녀 관계향상 자녀돌봄활동 프로그램 1:1 멘토링 (대면)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공모사업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코로나19 긴급생필품 지원	
		지원인력양성교육	배움지도사 온라인 양성교육	
가족 생활	맞벌이가정일가정양립지원	생애주기별 교육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지원 「2020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마을학습모임 '위드아띠'와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동네배움터 공 간을 제공 부모-자녀 협업활동 프로그램 (3D 업사이클 디자이너, 코딩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작품 제작)	서대문구 평생교육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 자조모임	1인 가구 대상 금융교육, 혼밥요리클래스 온라인 자조모임 활동 진행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코로나19 극복이벤트"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초기 가족참여 이벤트 실시 캠페인_손씻기,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계획세우기, 마음돌봄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 (미래설계 프로그램)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꽃다 발"(꽃보다 아름다운 다문화가족 발전 프로젝트)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부여활동 : 나의 정착수준 점검, 성인지 측면에서의 성역할, 결혼이민자의 관심분야 찾기 및 비전 설정	서대문구 성평등기금 사업
	다문화교류소통 공간사업	자조모임운영	개별가정에서 온라인 자조모임	
		지역사회통합지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 5월 가정의 달 가족간 편지 쓰기'편지로 마음을 전해요', 비영리기관 "누구나꽃" 연계 원예프로그램 꽃꽂이 :Centerpiece 활동	
	서울시다문화가족자조모임		베트남, 중국 전통춤을 함께 배워보는 자조모임 활동에서 온라인으로 배 우는 전통공예품 만들기 활동으로 변경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서비스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대면)	
		상시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키트 제공 후 참여후기를 제출 받는 형식으 로 진행	
		자녀돌봄품앗이	다양한 놀이활동, 만들기 활동을 개별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시간대에 접속하여 함께 진행	
		전화모니터링	긴급돌봄에참여하지않는아동에대해정기적으로전화모니터링실시	
		리더양성교육, 운영위원회	온라인으로 교육 및 회의 진행	
열린마루 (온라인 공개토론포럼)		서대문구내 유관기관 및 관련전문가 대상 온라인 공개토론회 센터 이용자 대상 온라인 공개토론회		
다문화 특성화 사업	통번역지원사업		전화상담을 통한 통역 및 정보제공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자녀언어발달 관련 개별가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온라인 부모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교육 실시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 2. 제언

○ 비대면 방식의 진행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줄어들어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함. 다양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센터의 각종 사업을 통해 "가족의 일상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센터"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

○ 가족상담사업의 경우 1:1상담, 가족상담 등 대면상담 외에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상상담을 실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IT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비대면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지원 필요

○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족유형별, 자녀연령대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 맞벌이가정, 취약계층가정 등 자녀돌봄사각지대 가정에 대한 1:1멘토링 등 소규모 대면 서비스 확대

○ 자조모임, 품앗이 활동 등 참여자간 관계형성을 통한 정보교류 및 지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역지침 준수를 토대로 소규모 대면활동 병행 실시 필요

[토론2]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

김연화 센터장 |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개인과 가족의 돌봄, 학업, 일(직장)과 경제생활, 가정생활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화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착용, 생활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달라진 일상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정책과의 동행이 필요하며 관련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역시 적지 않다.

또한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원, 복지관, 학교, 주간보호센터, 도서관 등이 휴관함에 따라 아동기 자녀, 장애 및 치매 등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던 노인과 그 가족의 경우 돌봄공백과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등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직과 휴직, 재택근무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가사 노동과 돌봄노동의 증가로 부모세대의 많은 고충, 특히 박경은 본부장의 발표내용과 같이 30,40대 여성들의 스트레스 및 부정적 감정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긴급돌봄지원TF'구성,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상담지원을 위한 상담매뉴얼 개발」, 「가족관계방역카드뉴스」배포,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지원 사업 및 매뉴얼 개발」 등의 대응을 한 점은 지지하는 바이다. 2020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대상 가족지원서비스 수요조사를 통해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방향성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는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은 우선적으로 그동안 시군구센터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중심의 코로나대응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코로나 19 상황 하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발제자의 의견에 근거하여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 대응사업 진행상황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으며 지자체 유일의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통합적 전문적 가족지원 전문기관을 표방하는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타 복지시설등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에 하던 2020년 사업관련지침 공청회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휴관 명령과 함께 시설의 방역과 안전캠페인 긴급 돌봄 및, 긴급지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김포시의 방역대책 공문에 따라 시설의 정기적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거리두기, 손 씻기, 재택근무 등 개인 및 시설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센터 회원 및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뿐 아니라 센터의 다양한 사업안내 정보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였다.

종사자들은 수시로 내려오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자체의 업무지침과 관련 내부 회의를 통해 센터 내 대면 긴급돌봄(공동육아나눔터, 다가온, 언어발달, 통번역 종사자와 아이돌보미연계TF)과 긴급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찾아가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취약위기 긴급가족 사례관리)와 다문화사례관리, 아이돌봄사업, 방문교육지원사업, 나아가 초등휴교로 원격교육, 비대면과 일부대면 통번역지원까지 지원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5월부터 비대면 다양한 가족교육, 한국어교육, 키트제공, 동영상이용 가족사랑의 날 등 문화공연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포함 가족복지서비스 대응마련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대응하며 수고를 하고 있다.

### <대면-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본 김포시센터의 경우 1차 돌봄 공백 고려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김포시의 공문과 지침을 받은 당일인 2월 26일 직원들과 긴급돌봄 TF팀을 구성하여 중지를 모으며, 사례관리사업 홍보와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홍보를 인근지역 아파트 등에 게시 등 홍보 모집을 통해 2월 29일부터 센터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긴급돌봄을 시작하였다.

센터 휴관을 하면서도 여성가족부와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아&초등반 긴급돌봄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고려하여 긴급돌봄TF팀 운영과 자체 직원교육으로 고유사업 외에 긴급돌봄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진행했다.

### <대면-사례관리 사업-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3월부터 센터의 사업팀의 집합교육은 휴관하였으나 2020년 김포시센터의 신규사업인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은 한가원의 신규사업 종사자교육도 집합교육 연기로 늦어짐에 따라 지자체와 상의하여 두 차례 연기 후 방역과 사회적거리를 두고 신규직원채용과 자체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이후 꼭 필요한 개별가정 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준비하였다. 4월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활동가인 배움지도사, 키움도우미, 지지리더 등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양성하여 위기가정 취약가정 사례관리와 후원품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위기이나 대상자선정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 사업을 통해 취약위기, 긴 급위기가족,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 사례관리로 찾아가는 상담, 원격학습지원 및 학습지원을 사례관리 담당자와 함께 배움지도사와 지지리더인 상담사 파견, 키움도우미 등이 찾아가는 대면 사례관리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늘어나는 후원물품 배분 등은 통역서포터즈와 봉사단, 그리고 전 직원이 후원품 수령 및 사례관리 대상가족을 위한 물품배분지원에 나서서 위기는 기회로 통합센터의 강점을 살려 효율적 업무와 함께 서로 업무를 도우며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간 친밀감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예산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빠르게 여가부와 시도지자체에서 마스크와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 상품권 등을 지역의 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상공회의소 및 단체 등과 네트워크로 취약위기가정을 지원에 앞장선 점, 단순 물품 지원 뿐 아니라 심리, 사례지원, 원격학습지원을 통해 새로운 회원 발굴 등은 지역유일 가족중심기관으로써의 역할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 <대면 방문교육,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대면 상담, 교육,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

휴관기관 초기에는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육지원사업은 잠시 휴관 후 4월부터 찾아가는 방문교육지원사업을 재개 하였다. 종사자, 방문지도사, 아이돌보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돌봄의 어려움을 고려해 긴급돌봄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 실시하였다. 방문지도사와 아이돌보미들에게는 김포시 등 마스크와 방역용품 지급과 방역수칙과 아동학대예방관련 자료를 SNS로 정기적으로 알리는 등 꾸준한 교육과 방역수칙 준수 하며 돌봄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부 가정은 부모의 실직이나 재택근무, 정부의 돌봄휴가제 이용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돌보미들 또한 수입감소가 있었다. 이로 인해 김포시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아이돌봄지원사업 상반기 전년대비 300여건정도 이용실적은 줄었지만 일부 어린이집과 학교 휴교에 따라 긴급돌봄과 아이돌봄 이용으로 신규회원 확보 및 센터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상담사업의 경우 본 센터는 상담대기자가 많은 점 고려해 센터 휴관 중에 처음에는 상담 연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담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상담사 개인정보 고려 센터 내 전화로 전화상담으로 지원하고 하고, 긴급상담이나 면접상담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하는 내담자 가족상담, 사례관리가정의 상담도 필요도가 증가하기에 상담실 방역 하에 센터 이용 내담자와 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긴급 및 위기가족 등 면접상담을 해 오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상담사 월 1회 보수교육과 자체사례관리와 분기별 상담 슈퍼비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거점 센터 등 연계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등도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대상 가족교육과 부부교육, 아빠와 함께하는 경제교육, 가정경제교육,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교육 및 자조모임, 다양한 가족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은 학교나 기관요청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는 비대면으로 코로나 상황고려 예술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소통교육을, 방문지도사, 아이돌보미, 상담사 등 활동가 대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하였다.

### <그 외 비대면 사업>

5월부터는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실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와 단절된 결혼이민자를 위해 기존 지역적 접근성 고려 5곳 11개반 운영예정인 한국어교육을 온라인으로 5개반 운영하고, 온라인 부모교육, 키트배달을 통해 가족사랑의 날, 온라인 가족사진 공모전, 비대면 가족뮤지컬 영상 상영 등의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는 여가부 공문에 의거 잠시 휴관 후 실시하였는데 초등생의 경우 원격수업 지도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자녀와 이민자부모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역수칙, 온라인쇼핑 등등 코로나로 달라진 정보 등을 알리고 외부인과 소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경은 본부장의 연구결과 발표자료와 같이 센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던 일부 회원들은 긴 겨울방학 후 3월 개강시점부터 코로나19로 휴관됨에 따라 심심 하다면서 센터 대면 집합교육이나 자조모임 등 개설 문의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초기 결혼이민자 배우자들 또한 집합한국어 개설로 배우자가 정기적 외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용자들은 발표자 자료처럼 비대면과 대면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요구도 지역 센터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대면 지원을 위해서는 정보 사각지대 시민가족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용 시 앱 활용 등 교육지원 방안 모색도 고려할 사항이다.

### ○ 제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결과와 본 센터의 운영경험, 한국가족정책학회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서비스 방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심의 온라인교육콘텐츠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번 포럼에 발표한 조사대상 및 사업은 시군구센터마다 일부 상이하기에 추후연구조사를 통해 교육, 상담, 사례관리, 돌봄 나눔,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ON) 운영 등등 사업을 추가하고 대상 선정 등 보다 더 심층적인 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지침, 매뉴얼,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에는 매년 신규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매뉴얼도 한가원에 기대해 봅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기가족대응 및 지원 매뉴얼도 기대합니다.

발표자의 연구조사결과 대상자들은 코로나19 코로나 19확산이후 가족생활의 변화의 경험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공유시간 증가, 가사노동시간의 증가, 자녀돌봄 및 교육 시간증가 등을 답했다. 이와 관련 가정 내 양육자, 여성의 돌봄과 교육, 가사노동과 스트레스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코로나19방역,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마음방역 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30~40대 양육자들을 위한 온라인 영상 활용, 비대면 교육 참여방법 어플 활용 교육이나 매뉴얼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코로나 19상황 외 에도 센터의 접근성이 먼 도서벽지 등 소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학생 대상 다문화가정언어발달지원사업도 온라인교육지원 방안을 고려할 사항이다. 그리고 통번역지원사업은 코로나19이후 병원진료, 비자연장, 긴급상담 및 사례관리 통역 시 전화통역과 서류관계 확인들을 위한 영상통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처우가 열악한 통번역담당지원 대상 기관 휴대폰 지원 등으로 보다 많은 통역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예산으로 운영하는 전국센터의 가족서비스 업무효율화 및 예산절감과 수준 향상을 위해 종사자 및 활동가, 상담사 등을 위한 가족서비스 온라인 공통교육 영상과 다양한 개인과 가족사업 콘텐츠 활용은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면교육 시 안전한 거리확보가 가능한 교육장 등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결과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의 문제로 인해 직접 센터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직접 센터로 방문하는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률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이용자의 과반(51.3%)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교육시 안전한 거리확보 가능한 큰 교육장이나 소규모집단 프로그램 등의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상담의 경우 면접상담에 대한 요구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상담실 방역 및 공간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자체의 방역이 검증된 넓은 단독건물과 안전한 공간확보를 위한 다양한 센터 시설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등은 지자체 별도 시설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용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공동육아나눔터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센터의 내부형 혹은 외부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간이용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내부형일 경우 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주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학습시 초등돌봄과 동시에 활용도가 높았으나 센터 외부에 설치된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ON)의 경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건물 휴관 시 출입이 센터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다른 센터에서는 별도의 공간마련이나 출입구, 별관에 설치하여 주말이나 야간, 긴급프로그램 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다가올 변화를 고려해, 온라인교육수강방법, 건강예방, 직업생활변화 등에 대한 내용, 가족시간관리, 양성평등 돌봄 및 가사노동, 가정경영, 가정경제, 소비생활교육과 개별가정 통합적 사례관리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기초, 초기정착지원 사업 등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차원의 동영상 콘텐츠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가족여가문화와 힐링을 위한 동영상 활용 문화콘텐츠를 개별센터에서 제작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필요하고 한국어 등 개강 후 언제 든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나 반복학습을 원하는 이민자 한국어 등 교육에 각 센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사업을 진행할 때 집단교육에 대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방향은 늘 개선되어야 하며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인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 사례관리나 다문화가족사례관리를 요구하는 가정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자원연계 방안 및 매뉴얼 보완 등도 필요하다 2020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방안과 2020년 7월 창립한 한국가족정책학회 창립총회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일상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과제> 발표 자료를 보면'가족은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언택트 할 수 없는 관계이고,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일상의 변화가 커지면서 더욱 중요해질 관계이다. ...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은 일,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전방위적 생활위기의 충격을 흡수 하는 완충재가 되고 있지만, 생활위기 충격은 근로지위, 결혼지위, 젠더, 생활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점차 가족문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도 박경은 본부장의 오늘 발표결과와 연계하여 앞으로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 다각화와 지역 특성화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지원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문제대응에 최적화하기 위한 종사자와 활동가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긴급 상황 시 온라인 교육 및 문화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위해서는 장비 대여비는 몇 달 지나고 보니 장비구입비보다 높은 점을 알게 되었다. 특성화사업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종사자 컴퓨터와 노트북 및 온라인 장비 등을 지자체와 논의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자산취득비가 추가되어야하고 비대면 사업 등을 위한 예산과목변경과 이러한 점 고려 차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이 수정보완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고려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연계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매뉴얼 보완 및 콘텐츠 영상지원과 민·관·학 연계 가족지원 연구와 가족복지정책개발 및 시군구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인과 가족 대상 전문적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토론3]  
비대면  
가족상담  
운영과제와 전망

이인수 원장 | 이인수심리상담연구소 & Other Life



코로나19는 사회적 질병재난으로 감염자와 그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상당한 심리·정서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방역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취하였고, 이는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한 이동제한, 재택근무, 개학연기 등은 가족 내 양육과 돌봄, 과중한 가사노동,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갈등으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갈등 및 다양한 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을 재고해야 하는 상기 발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연구결과처럼,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가족상담 서비스는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나마 수행되고 있는 상담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면접상담의 순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상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경험하고 점차로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 언컨택(uncontact) 사회를 지향하고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여 이루어져 왔던 상담서비스는 언컨택의 현실에서 상담서비스 방법을 구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담을 잘 진행해 왔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부터 상담서비스 변화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감염병의 사회적 재난에 맞서 준비되어야 할 비대면 가족상담의 운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 전망해 봅니다.

### 1. 센터에서의 상담서비스 유형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운영된 센터의 상담은 크게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여기서 진행된 전화상담의 성격은 심리정서상담이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보다는 면접상담을 위한 문의, 예약에 준하거나, 간단한 정보제공이나 상담(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분~30분을 넘지 않는 선)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상담방법의 구분에서 전화상담, 면접상담보다는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으로 유형 구분하고, 비대면상담도 세부적으로는 전화상담, 화상상담, 온라인(문자, 게시판, 사이버상담 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비대면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공간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비대면상담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여러 방식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적 기관이나 사설 상담기관에서의 비대면상담은 전화상담, 화상상담, 온라인(문자, 채팅상담, 게시판, 사이버상담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면과 달리, 전화나 화상 등의 비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질 경우, 센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비밀보장이 안전한 가에 관한 것입니다. 상담내용을 녹취, 녹화하지 않는다는 동의 서약을 한다 해도 내담자가 녹취하거나 녹화하는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대면시스템(전화, 화상도구 등)의 설비 구축은 센터 내로 한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화상담은 센터 내 착발신이 가능한 전화로 상담을 하여 기존 면접상담처럼 정해진 시간에 매칭된 상담자와 회기별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화상상담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 장치에 접근하는데, 연령이나, 지역, 가족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녹화, 녹취의 가능성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해킹 등으로 안전도에 있어서 전화상담보다도 더 취약하므로 이 방법에 관해서는 더욱 더 안전을 기하는 선에서야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언컨택의 사회에서 비대면상담에 관해서는 상담학계나 임상현장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려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자도 효율적인 면에서 비대면 상담개입방법을 잘 학습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모두 조심스럽게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의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수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비대면상담과 더불어 병행하여, 상담실의 공간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구조와 비말차단판 설치, 주기적 소독, 환기의 방역수칙 준수 등이 이루어질 때, 대면상담도 가능할 수 있음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영향, 가족관계의 변화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담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19가 가져오는 가족관계 내 갈등이나 위기를 호소하는 가족들도 많아짐에 따라, 대면상담만큼의 효율성은 아니라 해도 즉각적 개입의 비대면상담의 필요성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불안하여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한 언컨택(uncontact)의 시대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센서 기술 등의 진화로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온컨택(oncontact) 할 수 있는 비대면상담의 장치와 구성, 효율적 방법 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  
[참고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서비스  
수요조사 설문지  
—



Q2-1-1. 센터에서 이용하신 가족지원서비스별 이용 빈도는 어떠합니까?  
서비스별 이용 빈도를 선택해 주세요.

	거의 매일	주 1~2회	한달 1~2회	6개월에 1회	필요할 때 마다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상담 프로그램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전후상담)	①	②	③	④	⑤
문화 프로그램(가족사랑의 날)	①	②	③	④	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공간이용, 품앗이, 장난감대여)	①	②	③	④	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특성화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언어발달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 교육	①	②	③	④	⑤

Q2-2. 코로나19 확산 이전('20년 2월 23일 이전) 귀하께서 이용하신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아이돌봄지원사업
- 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사례관리, 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비스, 긴급 위기지원 등)
- ③ 방문교육사업
- ④ 다문화특성화사업(통번역서비스 등)

Q2-2-1. 이용하신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족지원서비스별 이용 빈도는 어떠합니까?  
서비스별 이용 빈도를 선택해 주세요.

	거의 매일	주 1~2회	한달 1~2회	6개월에 1회	필요할 때 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사례관리, 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비스, 긴급 위기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방문교육사업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특성화사업(통번역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 II.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가족생활 변화

Q3. 코로나19 확산 이후('20년 2월 23일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예                      ② 아니오→Q4번으로 이동

Q3-1. 코로나19 확산 이후('20년 2월 23일 이후)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답 가능)

- ① 직접 센터 방문→Q3-1-1번으로 이동                      ② 전화상담→Q4번으로 이동
- ③ 인터넷 상담(Familynet이용)→Q4번으로 이동
- ④ 통번역 지원(전화, Fax, E-mail 이용)→Q4번으로 이동
- ⑤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Q3-1-2번으로 이동
- ⑥ 기타(                      )→Q4번으로 이동

Q3-1-1. 코로나19 확산 이후('20년 2월 23일 이후) 귀하께서 센터에서 이용하신 가족지원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버지 교육 등)
- ② 상담 프로그램(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 ③ 문화 프로그램(가족사랑의 날 등)
- ④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공간이용, 품앗이, 장난감 대여 등)
- 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⑥ 다문화특성화사업(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언어발달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등)
- ⑦ 한국어 교육

Q3-1-2. 코로나19 확산 이후('20년 2월 23일 이후) 귀하께서 이용하신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아이돌봄지원사업
- 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사례관리, 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비스, 긴급 위기지원 등)
- ③ 방문교육사업
- ④ 다문화특성화사업(통번역서비스 등)

Q3-2.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빈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이용 빈도가 증가했다→Q3-2-1번으로 이동
- ② 이용빈도는 변화가 없다→Q4번으로 이동
- ③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Q3-2-2번으로 이동

Q3-2-1.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주요한 이유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_\_\_\_\_, 2순위 : \_\_\_\_\_ )

- ① 가족갈등 문제로 가족상담 등 지원이 필요해서
- ②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위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 ③ 자녀돌봄 문제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 ④ 보드게임, 만들기 키트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등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이 있어서
- 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만들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싶어서
- ⑥ 기타( )

Q3-2-2.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주요한 이유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_\_\_\_\_, 2순위 : \_\_\_\_\_ )

- 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②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어서
-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어서④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집으로 누군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망설여져서⑤ 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대중교통 이용 등)
- ⑥ 지역센터 공간의 안전(방역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 ⑦ 기타( )

Q4.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가 인식하는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Q4-1. 아래 문항을 읽으시고,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예→①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②번으로 이동		
① 식사준비 등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①-1. 가사노동시간 증가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② 자녀돌봄 및 교육 시간이 증가하였다.	①예→①번으로 이동					②아니오→②번으로 이동
②-1. 자녀돌봄 및 교육시간의 증가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③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다.	①예→①번으로 이동					②아니오→②번으로 이동
③-1.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자주 만나지 못해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④ 함께 살고있는 가족들과의 공유시간이 증가하였다.	①예→①번으로 이동					②아니오→②번으로 이동
④-1. 함께 살고있는 가족들과의 공유시간이 증가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⑤ 가계경제가 나빠졌다.	①예→①번으로 이동					②아니오→②번으로 이동
⑤-1. 가계경제가 나빠져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Q4-2.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자녀가 혼자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늘어났습니까?

- ① 예→Q4-2-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Q4-3번으로 이동

Q4-2-1. 자녀가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① 미리 식사 준비를 해놓고 자녀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사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도시락 배달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 등).
- ④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한다.
- ⑤ 특별히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
- ⑥ 기타( )

Q4-3.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① 자녀에게 신체적 훈육을 하거나 짜증 또는 큰 소리로 야단치는 횟수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② 배우자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③ 전반적으로 가족들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등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 III.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원서비스 수요 확인

Q5.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Q5-1. 코로나19 이후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등 교육서비스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가장 선호하는 진행 방식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_\_\_\_\_, 2순위 : \_\_\_\_\_ )

- 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② 실시간 온라인 교육
- ③ 5인 미만의 집합 강의
- ④ 집합교육(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 ⑤ 기타( )

Q5-2. 코로나19 이후 부부, 부모-자녀 등 상담서비스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가장 선호하는 진행 방식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_\_\_\_\_, 2순위 : \_\_\_\_\_ )

- ① 전화상담
- ② 온라인 상담(E-mail 또는 실시간 화상상담)
- ③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상담
- ④ 면접상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 ⑤ 기타( )

Q5-3.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가장 선호하는 진행 방식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혹은 돌봄서비스 이용이 여의치 않아 가정에 홀로 있어야 하는 자녀들의 식사, 생활지도, 학습 등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 ②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한 센터 내 긴급돌봄서비스
- ③ 센터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이동지원서비스
- ④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아이돌보미, 방문교육지도사, 배움지도사 등)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한 상시적 방역 관리 강화
- ⑤ 방문교육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의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 ⑥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키트 대여 및 제공
- ⑦ 기타( )

Q6. 코로나19로 향후 다음과 같은 사회변화가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래 문항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고용 불안정성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② 공교육 위력의 약화 및 사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③ 감염병의 일상화로 인한 가족여가 및 문화생활 위축	①	②	③	④	⑤
④ 가정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	①	②	③	④	⑤

Q7.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으신 서비스나 추가 필요하신 서비스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 )

**응답자 특성**

BQ. 아래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BQ2. 출생연도	( )년
BQ3.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중복 응답 가능)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기타( )	⑤ 없음		
BQ4. 주거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BQ5. 귀하는 다문화가족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Q6. 귀하는 한부모가족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고2]  
2020년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1차~5차)  
—

## 2020년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

(2020. 8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개요) 온라인 뉴스검색(키워드), 주요 정책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회환경 파악
- ◆ (목적) 파악된 동향을 통해 신규사업개발 및 기존사업 적용점 도출, 과제발굴협의체 의제개발 등
- ◆ (시기) 1개월 주기로 총 10회 예정

### I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 1차

#### < 온라인 신문기사 검색 >

□ 기간: 2020. 2. 1. ~ 3. 19.

□ 키워드

1인가구, 가족상담, 가족서비스, 가족정책, 가족친화,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부모, 돌봄, 육아, 면접교섭, 미혼모, 방임, 아이돌보미, 양육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

팬터믹(세계대유행) 전조인가...10년, 5년 짧아지는 신종 바이러스 공포(2020.1.22. 헤럴드경제)

→ 5년 주기로 발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상황 대비책 구축 필요

→ 현재까지의 현황 및 문제점 확인을 통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

○ 영유아, 초중등생 자녀 돌봄공백 문제 발생

아이돌봄 서비스 급증 돌보미 수급난(2020.2.26. 제민일보)

서초구, '아이돌보미 방역용품 파우치'로 주민불안 해소한다. (2020.2.27. 연합뉴스)

코로나로 보육공백 없도록 부처 협동 '긴급돌봄서비스' 돌입(2020.2.27. 라이선스뉴스)

'3주 개학 연기' 돌봄 부담 커지는 학부모(2020.3.3. 전북일보)

신청률 2%' 코로나로 드러난 돌봄정책 민낯... "돈 들어도 학원"(2020.3.15. 연합뉴스)

→ 긴급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감염 이슈로 집단 돌봄 폐쇄 중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관련 방역 문제 등(매뉴얼 내 안전파트)



○ 확산지역 내 자가격리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우울감

“코로나 불안감·우울감’ 줄여야...’심리 방역’ 방법은?(2020.3.16. YTN)  
신종코로나 불안감, 스트레스 심리상담 해줍니다. (2020.2.11. 한겨레)  
여가부, 코로나19 여파 우울감 호소 청소년 심리상담(2020.3.12. 쿠키뉴스)

- 전화, 화상, SNS 상담 시스템 구축
- 재난상황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변화대응사업부 연계)
- 자가진단 및 대처방안 매뉴얼 배포(다국어 배포)
- 한가원 재택근무 운영 체계 마련 필요(시스템, 복무관리 등)

○ 확산지역 내 자가격리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우울감

“구청 전화 뒤 남편 돌변” 신천지 아우팅에 금가는 가정(2020.3.10. 중앙일보)  
신천지 신도 가정불화...끊이지 않는 비극적 사건(2020.3.10. 헤럴드 경제)

-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대상자 접근부터 지원까지)

○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낙인

“5년 전 우리 마을이 이겨냈듯, 대구도 꼭 일어설 것”(2020.3.14. 동아일보)  
신종코로나 포비아. 중국계 다문화 학생 '왕따 불통'(2020.2.11. 경기일보)

- 다문화, 특정지역 혐오해소 등 가족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II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 2차

< 온라인 신문기사 검색 >

□ 기간: 2020. 3. 20. ~ 4. 17.

□ 키워드

1인가구, 가족상담, 가족서비스, 가족정책, 가족친화,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부모, 돌봄, 육아, 면접교섭, 미혼모, 방임, 아이돌보미, 양육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1)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에 따른 문제점 및 지원 방안

○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증가 우려

코로나19 격리안전 조치로 더 위험해진 사람들...가정폭력 피해자(2020.3.24., 케미컬뉴스)  
코로나로 '이동제한령' 내린 나라들, 가정폭력 늘었다(2020.4.1., 경향신문)  
코로나19 확산 후 아동학대 신고 13.8% 늘어...警 주의깊게 분석(2020.4.6., 이데일리)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방법
- 폭력 및 학대 사례 발굴 및 지원 방안 검토

○ 코로나19 대책/지원 사각지대 발생

생계도 돌봄도 힘겨운...“저는 한부모 자영업자입니다”(2020.3.21., KBS뉴스)  
긴급돌봄 아이들. 스마트폰, 노트북 없어 온라인 수업 막막(2020.4.4., 중앙일보)  
“삶이 뿌리째 흔들려요”...한부모가정·보호청소년에 닥친 ‘코로나 재난’(2020.4.7., 노컷뉴스)  
‘한부모·다문화·장애 학생’ 온라인 개학...“사실상 방치” (2020.4.4., 동아일보)  
반갑잖은 원격수업..다문화가정 교육 공백 위기 (2020.4.12., 서울경제)  
여가부, 돌봄 취약계층에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 (2020.4.14., 연합뉴스)

- 돌봄휴직, 재택근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
- 노트북 등 학습기기, 온라인 통신 연결 등 학습 기반 제공 및 지원
- 지원인력(돌봄서비스 제공자)을 통한 온라인 학습 방법 지도, 지역센터 공간 및 자원활용 등

○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방안

코로나블루 우울함 달래주는 AI 대화친구 심심이(2020.3.24., 이엠디)  
경북도 AI 콜센터 운영해 자가격리자 관리(2020.4.13., 연합뉴스)  
단양교육지원청 Wee센터, 비대면 상담 실시(2020.4.15., 충청투데이)  
의료진. 코로나19 확진 재외국민 돌본다...화상 의료 상담(2020.4.17., 뉴시스)  
공주시, 장난감 대여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2020.3.24., 연합뉴스)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가족서비스 제공(2020.4.6., 부산일보)

- 시기술 도입한 상담시스템 개발(전화/온라인/SNS 등)
- 비대면 센터 서비스 제공방안(시스템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접수 자동화, 공동육아나눔터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방안 등)

□ (주요내용2) N번방 관련 이슈(온라인/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 노출 우려

n번방 '박사' 범행 시인...피해자 74명 중 16명 미성년자 (2020.3.20., 한겨레)  
 12살 초등학생이 `제2의 n번방` 운영진...다시 떠오른 `촉법소년` (2020.4.8., 매일경제)  
 10대 디지털성범죄 가담 만연...학교는 '피해자 안되는 법' 교육 (2020.4.12., 연합뉴스)  
 "어리다고 용서해야 하나" 'n번방' 10대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우려 (2020.4.13., 아시아경제)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성교육, 자녀 성교육 관련 부모교육 제공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가족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 (주요내용3) 1인가구 지원방안

○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주거복지로드맵 2.0] 청년 1인가구·고령층 위해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확대(2020.3.20., 데일리팝)  
 남성보다 비중 커진 여성 1인가구, 주택시장 이끈 이유?(2020.3.25., 매일경제)  
 큰손이 된 그들, 혼족들을 잡아라(2020.3.24., 아시아경제)  
 종량구, 1인가구 홀로서기 지원프로그램 '해피 홀로데이' 운영(2020.4.1., 아시아경제)  
 서울 20~30대 1인가구, 식사 불규칙...영양섭취도 부실(2020.4.4., 동아일보)  
 [자치구 1인가구 사업] 은평구, 연령별 맞춤 서비스 강화...청년 새싹공간·중장년 쉼터 등 운영(2020.4.6., 데일리팝)  
 [1인가구 단신]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강남구 1인가구에 VOD 콘텐츠 무료 제공 외(2020.4.10., 데일리팝)  
 → 1인가구 특성에 따른 요구도 분석, 정책 방향 차별화 및 다양화(여성-안전, 노인-고독/빈곤, 청년-주거/생활 등)

□ (주요내용4) 양육비 이행 관련

○ 양육비 이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양육비 이행 규모 5년만에 규모 10배 ↑ ... 이행률도 35%로 상승(2020.3.23., 연합뉴스)  
 정부가 나서도...양육비 3명 중 2명 못 받아(2020.3.23., 경향신문)  
 소식이었던 대선 공약 '양육비 대지급', 다시 총선 공약에(2020.4.8., 베이비뉴스)  
 → 이행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절차 개선방안 논의  
 → 대지급제 실시 대비한 한가원(양육비이행관리원) 대응방안 등

Ⅲ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 3차

< 주요경향(1~3차) >

-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 긴급돌봄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파생된 문제 발생(특정대상 혐오, 가정폭력·아동학대, 지원 사각지대 등)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정보보완 강화 필요성
  - 연구기관 등 기관별 현황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제시 내용 증가
- 1인가구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지원 내용 특성화
- 다문화 이주민 유입 증가 및 이주여성 다양화 대비한 정책방향 검토
- 자료의 정보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 대응전략 >

- 비대면 사업 증가에 대한 전사적 대응(지속)
- 코로나19 관련한 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 생성(상반기내)

< 온라인 신문기사 검색 >

□ 기간: 2020. 4. 18. ~ 5. 15.

□ 키워드

1인가구, 가족상담, 가족서비스, 가족정책, 가족친화,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부모, 돌봄, 육아, 면접교섭, 미혼모, 방임, 아이돌보미, 양육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1) 코로나19 관련 이슈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뉴트렌드] "침대서 책상으로 출근" ...근무 패러다임 대변동(2020.4.25., 매일경제)  
 전문가들, '외출자제가 기본인 생활방역, 가족문화개선이 출발점'(2020.5.1.,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포스트 코로나 국정방향 집중 논의"(2020.5.6., 한국경제TV)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자화상] 3. '일-삶의 균형' 워라벨 자리 잡았다(2020.5.7., 경북일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무엇?(2020.5.10., 동아일보)

- 가족서비스 지원 환경 변화에 대비
- 정부 정책 추진방향 고려한 사업추진(생활SOC 사업 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책 지원 및 서비스 제공 현황

강동구, 온라인 부모교육 수강하고 놀이키트 신청하세요.(2020.4.21., 서울포커스)  
 함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대응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2020.4.21., 피디언)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들의 마음을 가까이해줄 프로그램 눈길(2020.4.22., 아시아뉴스통신)  
 코로나19로 '집콕생활'하느라 지친 가정에 찾아가는 가족상담으로 소통은 업, 갈등은 다운(2020.5.4., 서울포커스)  
 코로나19 극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비대면 프로그램과 함께(2020.5.13., 세계타임즈)  
 다누리콜센터, 코로나19 방역 수칙 12개 외국어 통번역 지원(2020.5.14., 이투데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센터 가족서비스 지원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공유

○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학대가정 아동 사각지대 발생 우려

개학 미뤄지며 아동학대 신고 급감...'코로나 사각지대 생기자'(2020.5.2., 중앙일보)  
 유은혜 "동작구 초등생 사망 유감...원격수업중 학생 소재, 안전 확인 철저(2020.5.4., 이데일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센터 가족서비스 지원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공유

□ (주요내용2) 가족다양성 감수성

○ 미디어에 비친 가족문제

"놀고 먹어도 양육비 들어와" 한부모 두 번 울린 드라마(2020.4.23., 베이비뉴스)  
 현실판 '부부의 세계'..."바람나 이혼한 남편이 애를 뺏겼대요"(2020.5.10., 머니투데이)

→ 한부모에 대한 편견 존재, 인식개선 및 언론 모니터링 방안 등  
→ 이혼가정의 아동권리 및 인권 강화 필요

□ (주요내용3) 1인가구 지원방향

○ 지원 대상 및 대상자 특성 파악

[혼족설문] 혼자 살며 가장 좋은 점은 '자유로움·나만의 공간'...가끔 찾아오는 외로움은 힘들어(2020.5.8., 데일리팝)  
 천안시, 중년 1인가구 고독사 방지 전수조사 실시(2020.5.8., 뉴스핌)  
 빈곤의 온상 1인가구...저학력자·미취업자일수록 비중 높아(2020.5.14., 매일경제)

→ 1인가구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시 고려  
→ 청년층/노년층에 집중된 1인가구 지원대상 확대

**Ⅳ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 4차**

< 주요경향 >

1️⃣ 코로나19 이후 지역센터 서비스 운영 방향

- 비대면 서비스 운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이후 대면 서비스도 일부 시작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다문화이해 강사교육 등 다문화관련 사업이 주로 비대면으로 운영
  - 예비부부교실, 아빠와의 체험프로그램 등 소수 인원 대상 및 야외활동으로 운영

[주요 비대면 서비스 운영 내용]

- ▶ 온라인 교육 및 상담
- ▶ 키트 제공을 통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 다문화 언어 정보제공 및 온라인 한국어교육
- ▶ 가정방문을 통한 온라인 학습참여 지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 (여성)고용 및 일자리 감소
- 1인가구의 고용악화, 주거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증가 등
-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및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확대
- 온라인 및 인공지능 활용 증가

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통령 지시(청와대 서면브리핑, 2020.6.8.)

-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 관련,
  -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

< 한가원 추진현황 및 대응전략 >

- 향후 코로나19 관련 현안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지역센터 비대면 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연구 추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센터 공유 예정(하반기)
- 2020년도 학대 및 방임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중
  - 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가정 징후 발견 및 연계훈련 사업
  - ②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시범사업

< 온라인 신문기사 검색 >

□ 기간: 2020. 5. 16. ~ 6. 12.

□ 키워드

1인가구, 가족상담, 가족서비스, 가족정책, 가족친화,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부모, 돌봄, 육아, 면접교섭, 미혼모, 방임, 아이돌보미, 양육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1) 코로나19이후의 한가원 및 지역센터 가족서비스 제공

○ 한가원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건강가정진흥원, 다양한 가족 소통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2020.5.18., 연합뉴스)  
건강가정진흥원, 코로나19관련 '가족관계방역' 카드뉴스 배포(2020.6.4., 컨슈머타임스)

- 유튜브, 카드 뉴스 등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시도
- 다양한 소통방식 및 콘텐츠 개발 및 모색
- 지역센터 비대면 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연구 추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센터 공유 예정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지역 센터 사업 활성화

가정의 달 5월, '부산가족축제' 온라인으로 펼쳐진다(2020.5.19., 조선일보)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기념 '패밀리 땡스데이' 진행(2020.5.27., 시사매거진)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소·확·행' 프로그램 실시(2020.6.1., 중부일보)  
경남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맞벌이가족의 짐을 응원한다' 실시(2020.6.5., 경제투데이)  
강북구, 온라인 '우리가족 행복캠페인' 진행(2020.6.12., 뉴스에이)

- 비대면 뿐 아니라 대면 서비스도 일부 재개됨(소수 인원 대상, 야외활동 방식). 대면 사업 실시 시 방역 강화 방안 점검
- 일률적 비대면 사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 및 발굴
- 지속적인 상황 변화 관찰을 통한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2) 아동학대 관련 이슈

○ 아동학대 강력사건 발생

'가방 안에 갇힌 아이' 아동학대 엄벌 국민청원 잇달아(2020.6.4., 경향신문)  
천안 계모 이어 창녕서도 또 아동학대.. '기관, 경찰, 안일하게 생각'(2020.6.4., 경향신문)  
코로나에 아동학대 사각지대 증가.. 교사 의무면담 등 필요(2020.6.10., 뉴스1)  
줄 잇는 아동학대에..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2020.6.10., 한국경제)  
연이은 아동학대사건.. 경찰, 위기아동 2315명 집중 점검 나선다(2020.6.10., 이데일리)  
반복되는 아동학대 부모교육 절실(2020.6.11., 금강일보)

- 2020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가정 징후 발견 및 연계훈련 사업",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
- 이혼·재혼·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스트레스 고위험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 및 가족지지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대국민 인식강화, 의심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

□ (주요내용3)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변화

○ 취약계층 고용 및 주거 상황 악화

여성에게 특히 가혹한 코로나19(2020.5.18., 부산일보)  
코로나 19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돌봄노동자(2020.6.12., 매일노동뉴스)  
1인 가구만 소득 5% 감소.. "코로나, 청년·노인 더 타격" 적중(2020.5.24., 한국일보)  
코로나19사태, 1인가구 주거불안 가속화(2020.5.28., 시사캐스트)  
코로나발 생계·양육 딜레마.. 외출 타는 한부모들(2020.5.22., 경인일보)

- 여성, 한부모, 저소득 1인가구 등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안정 관련 지원 대책 마련

○ 온라인 활용 증가로 인한 노동·교육 체제 변화 가속

언택트 시대, 유연근무제 도입 속도 1.. '근태' 아닌 '성과' 중심(2020.6.9., 산업일보)  
부산 가족친화기업 76% '코로나 끝나도 유연근무제 확대'(2020.5.18., 국제신문)  
언택트 문화 '늦게 퇴근=일 잘한다' 공식 파괴(2020.5.20.,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장기화에 언택트 초점 맞춘 교육업계(2020.6.8., 브릿지경제)

-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 도입 관련 가족친화사업 제도 정교화
- 근무형태 변화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 개발 및 발굴
- 온라인 교육 활성화 대비 다문화·조손가정 등 온라인 취약가정 지원 방안 마련

□ (주요내용4)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변화

○ 양육비 이행 관련 법 개정 및 법인식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 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2020.5.20., 경향신문)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2020.5.21., 법률신문뉴스)  
이혼부부, 양육비 공동계좌 만들라 판결에.. 대법원 '지나쳐'(2020.6.1., 동아일보)  
부산가정법원 제 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2020.5.31., 로이슈)

- 법 개정에 대응하는 한가원(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 절차 및 방안 마련
- 양육비이행 인식 개선 및 확립 위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 강화

## V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 보고 5차

### < 주요경향 >

- 온라인 신문기사 (2020.6.13.~7.10.)
  - 지역센터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대폭 증가
    -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서비스가 비교적 제한적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진행된 것에 비해 하반기(7월) 들어 프로그램 대상과 내용이 다양화되고 운영 횟수도 증가함
    - 언택트 프로그램 방식의 쌍방향 소통방식 시도 (예시, 키트를 활용한 활동 후 SNS를 통한 공유 등)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돌봄지원 확대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지자체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입법예고 중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토요일 또는 야간운영) 증가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 아동학대사건 지속적 보도
    - 전담보호관찰관 도입, 학대신고된 아동 특별점검 실시
    - 민법 및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논의
  - 문화 편견 증가 및 혈통주의 강화된 사회 분위기 형성
    - 코로나19 이후 국가 자부심은 증가한 반면, 이민자 및 해외유입 국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여가부·여정연,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조사」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 토론회(2020.7.10.)를 통해 공유
-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 발표(2020.7.14.)
  -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함

### < 한가원 추진현황 및 대응전략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7.8.~7.17.),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을 통한 결과 공유 및 논의 예정(8월 초)
- 「한국판 뉴딜정책」 반영한 사업운영 방향 수립 필요

### < 온라인 신문기사 검색 >

□ 기간: 2020. 6. 13. ~ 7. 10.

□ 키워드

1인가구, 가족상담, 가족서비스, 가족정책, 가족친화,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부모, 돌봄, 면접교섭, 미혼모, 아동학대, 방임, 아이돌보미, 양육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 (주요내용1) 지역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비대면 프로그램 내용 다양화

- 다양한 주제 및 내용의 비대면 서비스

- 키트 제공 뿐 아니라 비대면(SNS 또는 유튜브 탑재) 방식으로 전환하여 언택트 쌍방향 소통방식 방안 마련

“태교도 사회적 거리두기해요” 논산시 태교교육 프로그램 ‘아가마중’ 비대면 진행 호응(2020.7.6., 대전일보)

양천소방서, 다문화가정 대상 비대면 소방안전교육(2020.7.9., FPN)

나주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유튜브로 배 재배기술 알린다(2020.6.18., 오늘경제)

함양군 찾아가는 부모-자녀 소통향상 프로그램 ‘비대면 우리가족 정원꾸미기’(2020.6.21., 시민일보)

창원시, ‘아빠랑 토요일이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개시(2020.6.18., 경남뉴스투데이)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비대면 활동으로 색다른 일상 즐겨(2020.7.10., 시사일보)

[당진다문화] 다문화가족자녀 비대면 부모교육 실시(2020.7.3., 중도일보)

○ 다양한 주제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유아기 부모역할지원 프로그램 ‘오감각 퍼니 퍼포먼스’ 실시(2020.6.18., 세종타임즈)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센터, 산림치유 부모교육 진행(2020.6.15., 투데이안)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여성 취업기초소양교육 ‘카페제과 메뉴 만들기’ 실시(2020.6.18., 시사일보)

의령군,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진행(2020.6.24., 뉴스프리즌)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통통 꽃중년’ 중년기를 위한 가족교육 진행(2020.7.3., 시사매거진)

장수군 초등생 대상 ‘book cook 맛있는 책읽기’ 진행(2020.6.29., 전북도민일보)

[서산다문화]코로나19를 물리친 행복충전 가족나들이 행사 가져(2020.7.8., 중도일보)

‘황혼에 다시 쓰는 신혼일기’ 노인부부 리마인드 웨딩촬영 진행(2020.6.30., 의령 인터넷 뉴스)

‘엄마가 들려주는 손 인형 이야기’ 진행(2020.7.7., 경남연합일보)

남해군다문화센터, ‘너의 미래를 job아라’ 직업체업 교육(2020.7.2., 뉴스프리즌)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벌이 가정위한 ‘재무교육’ 진행(2020.7.3., 경제투데이)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힐링 교육’ 프로그램 진행(2020.6.29., 한국분양정보)

인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쌍의 하나뿐인 그대를 위한 육아 tip 부모교육(2020.6.23., 경인매일)



□ (주요내용2) '돌봄' 이슈에 대한 관심 고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 및 기존 시설의 확대 운영으로 돌봄 기능 강화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야간 및 주말 운영확대(2020.7.8., 경북중앙뉴스)  
김해시 공동육아나눔터, 월~금서 토요일까지 운영(2020.7.10., 경남신문)  
전북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2020.7.6., 전민일보)  
강북구,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설치 지원 공모사업' 선정(2020.7.8., 뉴스프리존)

○ 지방자치단체 돌봄 지원 사업 확대

- 코로나19팬데믹 및 저출산으로 인한 '돌봄'의 지역주민 요구 급증으로 각 지자체별 '돌봄'관련 대책 및 사업 제시 급증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공간 '다봄행복센터' 울산에 문 열어(2020.6.22., 연합뉴스)  
강진군 '우리아이 돌봄 종합지원센터' 조성(2020.6.22., 연합뉴스)  
종로구청,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교육부터 CCTV 대여까지(2020.6.24., 한국강사신문)  
경북형 아이돌봄 365일 24시간 운영\_내달부터 '119아이행복 돌봄터'경산, 영덕소방서 시행(2020.6.29., 경북도민일보)  
서울시, 교육청과 '마을돌봄, 학교돌봄 연계 강화' 업무협약(2020.6.26., 뉴스핌)  
중로구, 올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5개 확충(2020.7.7., 메트로)

○ 돌봄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돌봄시설 의무화로 돌봄시설 확충 기대  
- 저소득층 거주지역 돌봄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된다고(2020.7.9., 아시아경제)  
건설현장에 상주 감리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허용(2020.7.7., 연합뉴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부24'에서 바로 찾아 신청하세요(2020.6.29., 연합뉴스)  
고양시 증산 다함께 돌봄센터, 촘촘한 아이돌봄으로 사각지대 해소(2020.7.8., 시사일보)

□ (주요내용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 고강도 정부대책 실시

재학대비극 막는다..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 8500명 특별점검(2020.6.24., 중앙일보)  
아동학대사업 집중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내달도입(2020.6.15., 연합뉴스)  
아동학대 112 신고대응, 코드3->코드 1로 높아졌다(2020.6.15., 중앙일보)  
창원시, 아동학대조사 위한 관련 기관 공조 체계 구축(2020.7.6., 경남뉴스투데이)  
공공부문 더해진 '아동보호 울타리', 위기아동 사각지대 좁혀지나. (2020.7.1., 사이드뷰)  
잇단 아동학대 발생.. 지자체 최초 가정폭력 실태조사(2020.6.28., 한국유아교육신문)  
인권위, 아동학대 신고, 예방 시스템 전반 직권조사(2020.7.7., 연합뉴스)

○ 민법 및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논의

77%는 친부모 짓.. 아이는 그 지옥같은 집으로 돌아간다(2020.6.15., 뉴시스)  
이주환의원, 원가정보호 원칙 보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2020.6.15., 매일경제)  
아동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2020.6.25., ENB 뉴스)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친권자 자녀 징계권 민법 개정 촉구(2020.7.1., 한국경제)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 피해아동, 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2020.7.8., 이투데이)  
서영교 '학대피해 아동 가정복귀 방침 개선해야'(2020.6.28., 뉴스토마토)

○ 광의의 아동학대 정의 수용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 '국민동의청원' 등장(2020.6.16., 매일신문)  
중학생 아들, 양육비 안 준 친부 고소.. '학대, 폭언 있었다'(2020.7.6., 중앙일보)  
쓰레기 더미서 산 3살 아이.. 경찰, 아동학대 수사(2020.7.5., 동아일보)  
유튜브에 아동 3시간 연속 출연안된다.. 학대오인 콘텐츠도 제한(2020.6.30., 연합뉴스)  
중학생 소년은 매일 칼날 위 올라야했다.. '작두타기 학대'(2020.7.1., 중앙일보)  
숙제 못한다고.. 11살 딸 입에 노트 옥여넣은 30대 엄마(2020.6.29., 중앙일보)  
함양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2020.7.2., 경남매일일보)  
Wee센터 '아동학대 예방' 찾아가는 상담(2020.6.30., 뉴스사천)  
학대-훈육은 종이 한 장 차이.. '부모교육' 받는 부모들(2020.6.18., 연합뉴스)  
광주 서구,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 부모교육 실시\*2020.6.18., 오늘경제)

□ (주요내용4) 문화 편견 증가된 부정적 사회 분위기 확산

○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폐쇄적 사회분위기 조성

- 감염병 통제로 인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은 증가하였으나, 순혈주의 및 문화 편견은 증가

'코로나19로 더 팍팍해졌어요'..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2020.06.20.,노컷뉴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36%-> 17% 오히려 줄었다(2020.07.06., 중앙일보)

**2020년 제 1차 온라인 가족포럼: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발간등록번호 2020-KIHF-075

발 행 일 | 2020년 8월

발 행 인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발 행 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편집 | 가족서비스혁신본부 연구·사업기획부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전 화 | (02) 3479-7600

팩 스 | (02) 3479-7786

홈페이지 | [www.kihf.or.kr](http://www.kihf.or.kr)

인쇄처 | 삼원그래픽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2020년 제 1차 온라인 가족포럼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